

# 韓國服飾

第37號



단국대학교 禹宙善紀念博物館



## 目次

### □ 논문

류정(柳綾) 부인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의 직물 무늬  
이은진 5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1 :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한미경 35

진주 류씨 류정의 배위 경주 이씨 복식에 관한 연구  
이명은 59

□ 한국복식 간행규정 90

□ 연구윤리 규정 99



---

# 류정(柳綆) 부인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의 직물 무늬\*

---

이은진\*\*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 논문요약

진주 류씨 류정(柳綆)의 부인 경주 이씨 묘에서는 복식류 47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32점에 무늬 있는 옷감이 사용되었다. 무늬의 종류는 직조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무늬를 파악할 수 없는 5건을 제외하면 모두 28종이다. 무늬의 종류는 주무늬를 기준으로 식물무늬, 동물무늬, 자연산수무늬, 기물무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꽃무늬가 3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꽃무늬 중에서도 연꽃무늬와 모란무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으며, 작은꽃무늬 7건, 매화무늬 6건, 사계절꽃무늬 2건, 큰꽃무늬 1건이다. 과실무늬는 27건이며, 복숭아, 석류, 불수감, 여지, 포도 등의 과실무늬가 활용되었다. 동물무늬는 5건이며, 그중 4건이 원형의 용무늬였다. 자연산수무늬는 1건으로, 구름·물결과 보배무늬가 포함되어 있다. 보배무늬는 2건으로, 동·식물·자연산수와 보배무늬, 꽃과 보배무늬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출토 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무늬로 연꽃, 모란, 석류, 대나무, 용, 봉황, 새, 괴석, 파도, 물결, 구름, 화주, 파초선, 호로, 어고, 영지, 방승, 애엽, 서각, 귀갑무늬, 마름무늬 등이 조합된 열 네 개의 단위무늬를 하프 드롭(Half Drop) 형태로 배열한 무늬가 나타났다.

주제어: 한국 전통 무늬, 한국 직물 무늬, 조선시대 직물 무늬

---

\*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한 <진주 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 이씨 출토 복식>(2017)에 수록된 논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Author Eunjin Lee, E-mail: imjeann@hanmail.net

투고일 : 2017. 4. 5      심사개시일 : 2017. 4. 10      심사완료일 : 2017. 4. 25      게재확정일 : 2017. 5. 2

## I. 머리말

진주 류씨(晋州 柳氏) 참판공 정(挺: 1684-1753년)의 정부인인 경주 이씨 묘에서 복식류 47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32점의 유물에 무늬 있는 직물이 사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에 사용된 옷감에 사용된 무늬의 종류는 제직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무늬를 파악할 수 없는 5건을 제외하면 모두 28종이다.

무늬 있는 직물이 사용된 복식의 부분을 각 1건으로 계산하되 한 유물에 두 군데 이상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을 경우는 1건으로 하여 문직물이 사용된 수를 조사해보면 경주 이씨 복식류에 사용된 문직물은 모두 72건에 달한다.

경주 이씨 묘 직물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무늬가 나타나는데 꽃무늬와 과일무늬의 비중이 높다. 또한 한 종류로 구성된 단독무늬의 사용보다는 두 종류 이상으로 복합구성된 사례가 많다.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에 나타나는 직물무늬를 주무늬를 기준으로 식물무늬(꽃무늬, 과일무늬, 과일과 꽃무늬), 동물무늬(상상동물무늬), 자연산수무늬(구름무늬, 파도무늬), 기물무늬(보배무늬)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무늬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무늬의 종류와 특성은 <Table 1>에서 <Table 16>으로 정리하였다. 각 <Table>에서 가로선을 실선으로 구분한 것은 서로 다른 유형이며, 점선으로 구분한 것은 같은 유형이나 동일한 직물은 아닌 경우이다. 각 무늬의 1회 반복단위와 무늬의 개별크기는 경사 방향×위사 방향으로 표시하였다.

## Ⅱ. 직물 무늬의 종류와 특성

### 1. 식물무늬

#### 1) 꽃무늬

##### (1) 연꽃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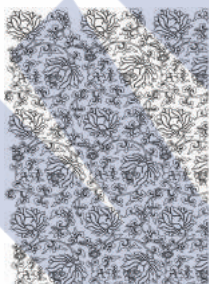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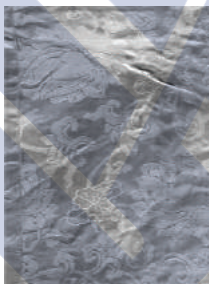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연꽃무늬는 <Table 1>과 같다. <Fig. 1>, <Fig. 2>는 각각 저고리(No. B11269) 끝동, 대령금(No. B11312) 길의 연꽃넙쿨무늬이다. 연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의 측면형 연꽃을 한 줄씩 번갈아 배열하고 꽃송이 그 주위를 팔매트형 잎사귀가 달린 넙쿨이 C자형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Fig. 3>, <Fig. 4>는 각각 저고리(No. B11282) 끝동, 소령금(No. B11311) 길·저고리(No. B11281) 안고름의 연꽃넙쿨무늬이다. 연방이 없는 측면형의 연꽃 한 가지로만 구성되었다. 꽃송이의 방향을 바꾸어 한 줄씩 엇갈리게 배열하고 그 주위를 팔매트형 잎사귀가 달린 C자형 넙쿨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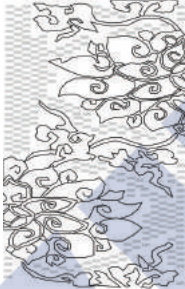
이밖에 저고리(No. B11269) 겹고름은 연꽃 중앙에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연방이 두드러지게 배치된 보상화풍 연꽃무늬로 구성되어 있으며 넙쿨도 일부 확인된다. 저고리(No. B11287) 깃에서는 꽃잎 하단부가 곡선으로 동그랗게 말린 것이 특징인 보상화풍의 연꽃과 넙쿨의 일부가 나타난다. 깃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전체무늬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깃 부분에서 연방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Fig. 5>는 누비저고리(No. B11273) 끝동과 깃의 연꽃무늬이다. 가로가 더 긴 작은 격자무늬 바탕에 꽃잎 하단부가 곡선으로 동그랗게 말린 보상화풍의 연꽃을 배열하였다. 꽃송이 중심에는 연방 대신 꽃잎의 형태는 동일하나 크기가 작은 꽃송이가 들어 있다. 깃과 끝동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전체무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넙쿨의 유무도 알 수 없다.

〈Table 1〉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연꽃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br>무늬 | 연꽃<br>무늬 |    | —   | —              | —              | —                | —                               |
|          |         |          | 〈Fig. 1〉 저고리(No. B11269) 끝동                                                         |     |                |                |                  |                                 |
|          |         |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50×110          | 연꽃1<br>100×110<br>연꽃2<br>88×115 |
|          |         |          | 〈Fig. 2〉 대령금(No. B11312) 길                                                          |     |                |                |                  |                                 |
|          |         |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                | —                               |
|          |         |          | 〈Fig. 3〉 저고리(No. B11282) 끝동                                                         |     |                |                |                  |                                 |
|          |         |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210×102          | 70×62                           |
|          |         |          | 〈Fig. 4〉 소령금(No. B11311) 길,<br>저고리(No. B11281) 안고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br>무늬 | 연꽃<br>무늬 | 저고리(No. B11269) 겹고름                                                                                                     | -   | -        | -  | -                | -                |
|          |         |          | 저고리(No. B11287) 깃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br><Fig. 5> 누비저고리(No. B11273)<br>깃·끝동 | 화문주 | 변화<br>평직 | 능직 | -                | -                |

## (2) 모란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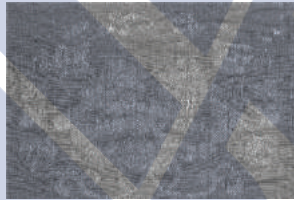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는 <Table 2>와 같다. <Fig. 6>은 저고리(No. B11288)와 저고리(No. B11290) 끝동, 누비장옷(No. B11298) 안고름, 저고리(No. B11270) 겹고름에 사용된 모란과 새무늬이다. 끝동, 겹고름, 안고름 등 사용된 옷감의 면적이 좁아 전체무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좌우대칭을 이루는 모란과 새, 작은 영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주 이씨 묘 직물 중에는 모란무늬가 주무늬로 활용되고 전체 형태가 원형을 이루는 무늬가 모두 4건이 있다. <Fig. 7>은 누비저고리(No. B11275) 겹감의 무늬이다. 모란이 중심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 연꽃과 연방, 줄기를 배치하여 원형을 이루었다.

<Fig. 8>은 저고리(No. B11271) 끝동의 무늬이다. 모란 꽃송이가 중심에 위치하고 줄기로 원형의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 외 저고리(No. B11281) 겹감·깃·겹고름에 사용된 원형의 모란무늬는 무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세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너른바지(No. B11301) 겹감의 일부에도 원형의 모란무늬가 있으나 이 역시 무늬의 세부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Table 2〉 경주 이씨 묘 직물의 모란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br>무늬 | 모란과<br>새무늬              |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Fig. 6〉 저고리(No. B11288) 끝동<br>저고리(No. B11290) 끝동<br>누비장옷(No. B11298) 안고름<br>저고리(No. B11270) 겹고름 |     |           |           |                  |                  |
|          |         | 모란과<br>연꽃<br>무늬<br>(원형) |                | 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                | 125×135          |
|          |         |                         | 〈Fig. 7〉 누비저고리(No. B11275) 겹감                                                                    |     |           |           |                  |                  |
|          |         | 모란<br>무늬<br>(원형)        |               | —   | —         | —         | —                | 73×92            |
|          |         |                         | 〈Fig. 8〉 저고리(No. B11271) 끝동<br>저고리(No. B11281) 겹감·깃·겹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85×95            |
|          |         |                         | 너른바지(No. B11301) 겹감 상단                                                                           | 화문주 | 평직        | 능직        | 495×130          | 70×90            |

**(3) 사계절꽃무늬[四季花紋, 四樣花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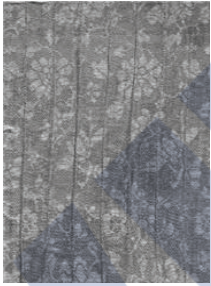
사계절꽃무늬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네 종류의 꽃을 함께 도안한 무늬를 말한다.<sup>1)</sup>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사계절꽃무늬는 〈Table 3〉과 같다.

〈Fig. 9〉는 누비저고리(No. B11291) 겹감과 깃의 사계절꽃무늬이다. 절지형의 모란·연꽃·국화·매화가 한 줄씩 어긋나게 브릭형으로 배치되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p. 91.

〈Fig. 10〉은 치마(No. B11305) 겹감의 사계절꽃무늬이다. 〈Fig. 9〉와 마찬가지로 절지형의 모란·연꽃·국화·매화로 구성되었으나 한 줄에 두 가지 꽃이 교대로 반복되었다.

〈Table 3〉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사계절꽃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br>무늬 | 사계절<br>꽃무늬 |  <p>〈Fig. 9〉 사계절꽃무늬<br/>누비저고리(No. B11291) 겹감·깃</p> | 화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113×37           | 국화<br>37×38<br>연꽃<br>34×28<br>매화<br>30×39<br>모란<br>39×35 |
|          |         |            |  <p>〈Fig. 10〉 사계절꽃무늬<br/>치마(No. B11305) 겹감</p>    | 추사  | 평직        | 부직        |                  | 연꽃<br>38×24<br>국화<br>34×27<br>매화<br>32×30<br>모란<br>34×32 |

#### (4) 작은꽃무늬[細花紋]

작은꽃무늬는 외형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꽃의 이름을 명명할 수 없는 작은 꽃들을 도안한 무늬를 말한다.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작은꽃무늬는 〈Table 4〉와 같다.

〈Fig. 11〉은 저고리(No. B11286) 겹감·깃·안고름의 작은꽃무늬이다. 저고리(No. B11268) 안고름에도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모란, 연꽃, 영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꽃 등 네 가지 무늬가 주무늬로 한 줄씩 번갈아 엇갈리게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연꽃, 소국, 네 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작은 꽃, 과일 등이 보조무늬로 배치되었다.

〈Fig. 12〉는 누비장옷(No. B11298) 겹감·깃의 작은꽃넙쿨무늬이다. 매화 1종과 모란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줄씩 교차 배열된 형태이다.

이밖에 저고리(No. B11275) 안고름의 작은꽃넙쿨무늬는 고름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전체 무늬의 구성이나 무늬의 1회 반복단위, 무늬의 크기 등은 알 수 없다.

〈Table 4〉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작은꽃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무늬 | 작은<br>꽃무늬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74.4×36          | —                          |
|          |     |           | 〈Fig. 11〉 저고리(No. B11286)<br>겉감·깃·안고름                                               |     |                |                |                  |                            |
|          |     |           | 저고리(No. B11268) 안고름                                                                 |     |                |                |                  |                            |
|          |     |           | 저고리(No. B11267) 겉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저고리(No. B11278) 겉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저고(No. B11282) 겉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 화문주 | 평직             | 능직             | 60×39            | 매화<br>32×30<br>모란<br>34×32 |
|          |     |           | 〈Fig. 12〉 누비장옷(No. B11298)<br>겉감·깃                                                  |     |                |                |                  |                            |
|          |     |           | 저고리(No. B11275) 안고름                                                                 | 화문능 | 3매<br>경능직      | 3매<br>위능직      | —                | —                          |

\* 는 육안으로 작은꽃무늬임을 확인하였으나 직조상태가 좋지 않아 꽃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임.

#### (5) 큰꽃과 보배무늬[大花紋]

큰꽃무늬는 실제 꽃의 생김새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화려하고 크게 도안한 꽃무늬를 말한다.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큰꽃무늬는 〈Table 5〉와 같다.

〈Fig. 13〉은 치마(No. B11303) 겉감의 큰꽃무늬이다. 두 종류의 큰꽃을 주무늬로 하고

매화, 두 종류의 나비, 세가지의 보배무늬 금정, 쌍서각, 여의를 보조무늬로 넣었다.

〈Table 5〉 경주 이씨 묘 직물의 큰꽃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무늬 | 큰꽃과<br>보배<br>무늬 | <br>〈Fig. 13〉 치마(No. B11303) 겹감 | 화문사 | 평직   | 익직 | 390×220          | 꽃1<br>190×125<br>꽃2<br>170×108<br>나비1<br>40×40<br>나비2<br>43×58<br>금정<br>68×52<br>쌍서각<br>55×75<br>여의<br>56×122 |

#### (6) 매화와 까치무늬[梅鳥紋, 梅鵲紋]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매화와 까치무늬는 〈Table 6〉와 같다. 〈Fig. 14〉는 누비저고리(No. B11267) 겹감·깃, 저고리(No. B11278) 겹감·깃, 저고리(No. B11289) 안고름, 토시(No. B11300) 겹감에 사용된 매화와 까치무늬이다. 좌우대칭을 이루는 매화 꽃송이와 가지를 주무늬로 하고 까치가 좌우대칭을 이루며 주무늬 사이사이에 배열되었다. 창녕 조씨의 저고리(No.13) 겹감의 무늬인 〈Fig. 15〉<sup>2)</sup>와 비교해보면 매화 꽃송이와 가지의 생김 모양은 다르지만 대칭을 이루는 구도 등은 유사하다.



〈Fig. 14〉 매화와 까치무늬  
누비저고리(No. B11267) 겹감·깃  
저고리(No. B11278) 겹감·깃  
저고리(No. B11289) 안고름  
토시(No. B11300) 겹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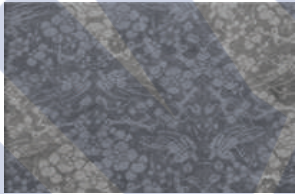
〈Fig. 15〉 매화와 까치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3) 길·소매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9

2) 여주박물관(2011).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여주: 여주박물관, p. 139.

누비저고리(No. B11270) 걸감의 무늬인 <Fig. 16> 역시 무늬의 구도는 <Fig. 14>와 유사하지만 매화와 새의 생김새 등 무늬의 세부형태가 다르며 나뭇가지가 더 얇고 여백이 적다.

<Fig. 17>은 누비저고리 (No. B11291) 끝동의 무늬이다. 굵은 매화 가지에 한 마리의 까치가 표현되어 있다. 좁은 면적에 사용된 사례이므로 전체무늬를 확인할 수 없다.

<Table 6> 경주 이씨 묘 직물의 매화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꽃무늬 | 매화와<br>까치<br>무늬 | <Fig. 14><br>누비저고리(No. B11267) 걸감·깃<br>저고리(No. B11278) 걸감·깃<br>저고리(No. B11289) 안고름<br>토시(No. B11300) 걸감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25×115          | 새1<br>28.6×67.1<br>새2<br>34.1×64.9<br>매화1<br>30.8×50.6<br>매화2<br>28.6×49.5 |
|          |     |                 | <br><Fig. 16>누비저고리(No. B11270) 걸감            | 화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77×115           | 매화1<br>36×60<br>매화2<br>24×63<br>새<br>25×65                                 |
|          |     |                 | <br><Fig. 17> 누비저고리 (No. B11291)<br>끝동 좌, 우 | —   | —              | —              | 168×?            | 매화<br>52×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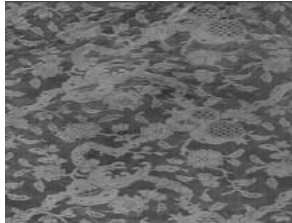
## 2) 과실무늬

### (1)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桃榴佛手紋, 三多紋]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는 <Table 7>과 같다. <Fig. 18>은 소림금(No. B11311) 깃의 도류불수무늬이다. 저고리(No. B11284)의 걸감·깃·겉고름, 대림금(No. B11312) 깃에도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석류 한 쌍과 복숭아, 불수감 한 쌍이 단위무늬를 이루며 번갈아 배치되고 나뭇가지가 사선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무늬는 <Fig.



19)<sup>3)</sup>의 창녕 조씨 저고리(No. 8) 길·소매의 무늬와 구성과 배치가 동일하나, 석류 알의 크기와 면적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Fig. 18〉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소렴금(No. B11311) 깃  
저고리(No. B11284) 겹감·깃·겉고름  
대렴금(No. B11312) 깃



〈Fig. 19〉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8) 길·소매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6

〈Fig. 20〉은 저고리(No. B11284) 끝동의 무늬이다. 도류불수무늬에서 대개 불수감은 복숭아와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무늬의 경우 불수감과 함께 감처럼 가로가 긴 타원형이며 꼭지가 있는 과일이 함께 조합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창녕 조씨 저고리(No.10) 길과 소매의 무늬인 〈Fig. 21〉은 불수감과 가로로 긴 타원형이며 꼭지가 있는 과일이 쌍을 이루고 있는 등의 구성뿐만 아니라 세부형태까지도 〈Fig. 20〉과 흡사하다. 〈Fig. 20〉은 끝동에 사용된 사례이므로 전체무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Fig. 21〉<sup>4)</sup>을 통해 복숭아와 짝을 이루는 것이 석류일 것으로 추정된다.



〈Fig. 20〉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저고리(No. B11284) 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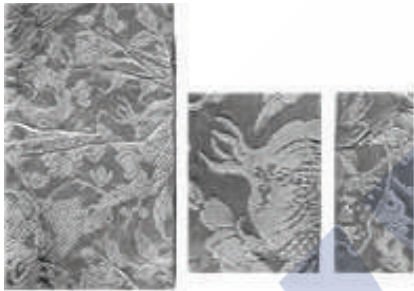
〈Fig. 21〉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0) 길·소매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7

저고리(No. B11268) 끝동의 무늬인 〈Fig. 22〉도 도류불수무늬로 석류·복숭아, 불수감·

3) 여주박물관(2011), op. cit, p. 136.

4) Ibid, p.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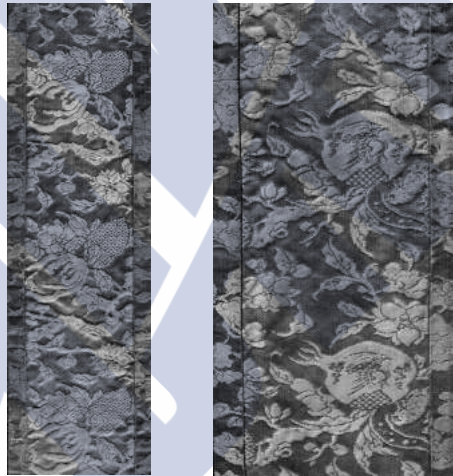
여지가 짝을 이루어 나뭇가지 위에 배열되어 있다. 이는 <Fig. 23><sup>5)</sup>의 창녕 조씨 저고리(No. 15) 길·소매의 무늬의 구성과 형태가 흡사하다. 경주 이씨 유물의 경우 걸감 대비 면적이 적은 끝동에 사용되어 석류·복숭아무늬의 완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각각의 과실 안에 새무늬를 넣은 점 등이 창녕 조씨 저고리(No. 15) 무늬, <Fig. 24><sup>6)</sup>의 밀창군 대대(No. 9150) 무늬와 흡사하다.



<Fig. 22>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저고리(No. B11268) 끝동



<Fig. 23>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5) 길·소매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41



<Fig. 24>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  
밀창군(1677~1746년) 대대(No. 9150)  
- 한국복식 22호, p.148

5) 여주박물관(2011), op. cit. p. 141.

6) 박성실(2004),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고찰, 한국 복식, 22, p. 148.



〈Table 7〉 경주 이씨 묘 직물의 도류불수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복숭아,<br>석류,<br>불수감<br>무늬        | 〈Fig. 18〉<br>소렴금(No. B11311) 깃<br>저고리(No. B11284)<br>겉감·깃·겉고름<br>대렴금(No. B11312) 깃 | 화문단 | 8매<br>경수<br>자직 | 8매<br>위수<br>자직 | 110~140<br>×<br>157~160 | 석류<br>한 쌍<br>48×80<br>복숭아·<br>불수감<br>43×85 |
|          |          | 복숭아,<br>불수감,<br>과실<br>무늬        | 〈Fig. 20〉<br>저고리(No. B11284) 끝동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20×?                   | 불수감·<br>과실<br>57×?                         |
|          |          | 복숭아,<br>석류,<br>여지,<br>불수감<br>무늬 | 〈Fig. 22〉<br>저고리(No. B11268) 끝동                                                    | 화문단 | 8매<br>경수<br>자직 | 8매<br>위수<br>자직 | 124×?                   | 불수감·<br>여지<br>60×70                        |

## (2) 복숭아와 석류무늬[桃榴紋]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복숭아와 석류무늬는 〈Table 8〉과 같다. 〈Fig. 25〉는 치마(No. B11304) 겉감의 도류무늬이다. 복숭아와 석류를 주무늬로 하여 한 줄씩 교대로 엇갈리게 배열하고, 두 종류의 새와 두 종류의 꽃이 보조무늬로 활용되었다. 복숭아는 만자문, 작은 꽃과 잎사귀가 들어있으며, 다른 직물과는 달리 복숭아의 꼭지 부분이 복숭아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류 속에는 작은 꽃, 잎사귀, 석류알 등이 표현되어 있다. 창녕 조씨 저고리(No. 7, 22-2) 길과 소매의 무늬인 〈Fig. 26〉<sup>7)</sup>은 무늬의 세부형태는 다르나 새를 함께 조합한 점, 복숭아꽃이 들어 있는 복숭아의 생김새 등이 유사하다.

7) 여주박물관(2011). op. cit. p. 138.



〈Fig. 25〉 복숭아와 석류무늬  
치마(No. B11304) 겹감



〈Fig. 26〉 복숭아와 석류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7, 22-2) 겹감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8

〈Fig. 27〉은 저고리(No. B11281) 끝동의 도류무늬이다. 좌우대칭의 복숭아 한 쌍과 석류로 구성되어 있다. 복숭아와 석류 안에 작은 꽃과 잎사귀가 들어있다.

〈Fig. 28〉은 너른바지(No. B11301) 겹감 하단의 도류무늬이다. 주무늬로서 좌우대칭을 이루는 복숭아 세 개와 석류 세 개가 각각의 단위무늬를 구성하며 한 줄씩 번갈아 어긋나게 배치하고 세 개의 복숭아 중앙에는 복숭아꽃과 잎사귀가, 세 개의 석류 중앙에는 석류꽃과 잎사귀가 배치되고 좌우로 가지 끝에 달린 꽃봉오리가 배치되었다. 석류와 석류 사이, 복숭아와 복숭아 사이에 날개의 무늬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작은 나비가 각각 배치되었다. 석류 세 개로 구성된 단위무늬 상단에는 좌우 대칭된 나비무늬, 하단 좌우에는 또 다른 나비무늬가 들어있다.

〈Table 8〉 경주 이씨 묘 직물의 도류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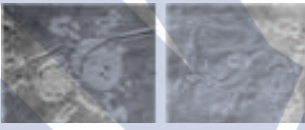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복숭아와<br>석류<br>무늬 | 〈Fig. 25〉<br>치마(No. B11304) 겹감                                                                                             | 화문능 | 3매<br>경능직 | 3매<br>위능직 | 302.1<br>×<br>100.7 | 복숭아<br>106.4×102.6<br>석류<br>93.1×100.7<br>새1<br>49.4×43.7<br>새2<br>47.5×47.5<br>꽃1<br>57×57<br>꽃2<br>53.2×55.1                |
|          |          |                  | <br>〈Fig. 27〉<br>저고리(No. B11281) 끝동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br>〈Fig. 28〉<br>너른바지(No. B11301) 겹감 하단 | 화문주 | 평직        | 능직        | 약<br>158×116        | 복숭아<br>72.9×?<br>석류<br>88.2×?<br>나비1<br>18×33.3<br>나비2<br>20.7×39.6<br>나비3<br>22.5×36.9<br>나비4<br>25.2~26.1<br>×<br>27.9~30.6 |

### (3) 복숭아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복숭아무늬는 〈Table 9〉와 같다. 〈Fig. 29〉는 누비저고리(No. B11273) 겹감의 복숭아무늬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복숭아 두 쌍을 주무늬로 하여 한 줄씩 번갈아 어긋나게 배열하고 작은 크기의 나비, 복숭아꽃 등을 보조무늬로 활용하였다.

〈Fig. 30〉은 저고리(No. B11286) 끝동의 복숭아무늬이다. 양쪽 끝동의 뒷면에서만 무늬가 확인되었다. 왼쪽 끝동의 뒷면에서는 복숭아 한 쌍이 달린 절지형의 무늬를, 오른쪽 끝동 뒷면에서는 복숭아와 복숭아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9〉 경주 이씨 묘 직물의 복숭아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복숭아<br>무늬 | <br>〈Fig. 29〉 누비저고리(No. B11273)<br>결감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50×150          | 복숭아<br>40×115    |
|          |          |           | <br>〈Fig. 30〉 저고리(No. B11286)<br>끝동(왼쪽·오른쪽)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                | 복숭아<br>60×85     |

#### (4) 석류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석류무늬는 〈Table 10〉과 같다. 〈Fig. 31〉은 누비저고리(No. B11273) 결마기의 석류무늬이다. 좌우대칭을 이루는 석류 한 쌍과 나뭇가지, 작은 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류 안에는 창살문과 잎사귀가 들어있다. 이와 흡사한 무늬로 창녕 조씨 저고리(No. 16)삼희장의 무늬인 〈Fig. 32〉<sup>8)</sup>의 복숭아와 석류무늬가 있다. 바탕의 조직감과 석류 안의 창살무늬와 잎사귀의 위치는 다르나 전체 무늬의 배치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경주 이씨 누비저고리(No. B11273) 결마기는 제한적인 면적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현재 석류무늬만 남아 있으나 복숭아와 함께 조합된 무늬였을 가능성도 있다.

8) 여주박물관(2011). op. cit. p. 137.



〈Fig. 31〉 석류무늬  
누비저고리(No. B11273) 결마기



〈Fig. 32〉 석류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6) 삼회장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7

〈Table 10〉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석류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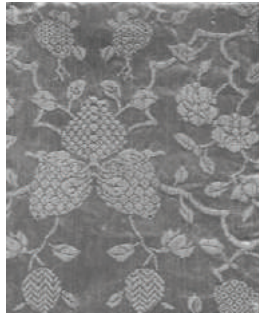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석류<br>무늬 | 〈Fig. 31〉 누비저고리(No. B11273) 결마기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5) 여지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여지무늬는 〈Table 11〉과 같다. 〈Fig. 33〉은 누비저고리(No. B11267) 끝동의 여지무늬이다. 세 개의 여지가 삼각형을 이루는 주무늬에, 형태나 질감의 표현은 조금 다르나 역시 여지로 보이는 두 종류의 과일과 꽃무늬 등이 보조무늬로 활용되었다. 창녕 조씨 저고리(No. 11) 길·소매와 저고리(No. 21-2) 전체에 사용된 무늬인 〈Fig. 34〉<sup>9)</sup>는 과일 세 개가 모여 삼각형의 주무늬를 이루며 작은 과일, 꽃 등이 보조무늬로 활용된 점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경주 이씨 누비저고리(No. B11276) 끝동의 무늬인 〈Fig. 35〉 역시 전체무늬를 알 수 없으나 여지무늬인 것으로 보인다.

9) Ibid, p. 138.



〈Fig. 33〉 여지와 꽃무늬  
누비저고리(No. B11267) 끝동



〈Fig. 34〉 여지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1) 길·소매  
저고리(No. 21-2) 전체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8

〈Table 11〉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여지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여지와<br>꽃무늬 | 〈Fig. 33〉<br>누비저고리(No. B11267) 끝동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38×?            | 50×55            |
|          |          | 여지<br>무늬   | 〈Fig. 35〉<br>누비저고리(No. B11276) 끝동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6) 포도다람쥐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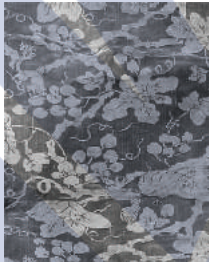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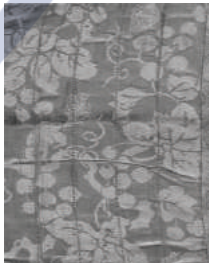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포도다람쥐무늬는 〈Table 12〉와 같다. 치마(No. B11308) 겹감, 저고리(No. B11278)와 저고리(No. B11283), 누비저고리(No. B11292)의 끝동 등 네 곳에 사용된 〈Fig. 36〉, 저고리(No. B11269) 겹감에 사용된 〈Fig. 37〉, 저고리(No. 11270) 끝동의 무늬인 〈Fig. 38〉은 포도 넝쿨과 가지에 매달린 다람쥐, 거꾸로 매달린 다람쥐 등 무늬의 구성과 배치가 유사하며, 잎사귀의 크기와 모양, 포도알의 수, 넝쿨의 꼬임 정도, 다람쥐의 얼굴이나 꼬리와 같은 생김새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누비저고리(No. B11285) 끝동의 무늬인 〈Fig. 39〉는 전체무늬는 알 수 없으나 무늬 왼쪽



상단 앞사귀의 형태가 다른 유물들과 차이가 있으며, 직조 상태가 거칠다.

〈Table 12〉 경주 이씨 묘 직물의 포도다람쥐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포도<br>다람쥐<br>무늬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45~157<br>×161<br>(추정) | 다람쥐1<br>38.4×25.6<br><br>다람쥐2<br>51.2<br>×<br>20.0~22.4 |
|          |          |                 | 〈Fig. 36〉 치마(No. B11308) 걸감<br>저고리(No. B11278) 끝동<br>저고리(No. B11283) 끝동<br>누비저고리(No. B11292) 끝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g. 37〉 저고리(No. B11269) 걸감                                                                    | —   | —              | —              | —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포도<br>다람쥐<br>무늬 |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178×?                   | —                                                       |
|          |          |                 | 〈Fig. 38〉 저고리(No. 11270) 끝동                                                                     | —   | —              | —              | —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포도<br>다람쥐<br>무늬 |              | 화문단 | —              | —              | 183×?                   | 다람쥐<br>45 ×<br>32~35                                    |
|          |          |                 | 〈Fig. 39〉 누비저고리(No. B11285) 끝동                                                                  | —   | —              | —              | —                       | —                                                       |

## (7) 과실과 꽃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과실과 꽃무늬는 <Table 13>과 같다.

<Fig. 40>은 저고리(No. B11270) 깃의 과실과 꽃무늬이다. 누비장옷(No. B11298) 겹고름에도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 직물은 복숭아, 이름을 알 수 없는 과실, 꽃 등 다섯 가지 이상의 무늬로 구성되었다.

<Table 13> 경주 이씨 묘 직물의 과실과 꽃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식물<br>무늬 | 과실<br>무늬 | 꽃과<br>과실<br>무늬        |  | 화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175×?            | —                                                                                                                                                      |
|          |          |                       | <Fig. 40> 저고리(No. B11270) 깃<br>누비장옷(No. B11298) 겹고름                                |     |            |            |                  |                                                                                                                                                        |
|          |          |                       | <Fig. 41> 저고리(No. B11266),<br>깃·끝동·결마기                                             | 화문단 | 5매<br>경수자직 | 5매<br>위수자직 | —                | —                                                                                                                                                      |
|          |          | 꽃·<br>과실과<br>보배<br>무늬 | <Fig. 43> 결마기(No. B11289)<br>겹감·깃·겹고름<br>저고리(No. B11269) 깃·결마기                     | 화문단 | 5매<br>경수자직 | 5매<br>위수자직 | 195.8<br>×106.7  | 석류<br>51.7×73.7<br>복숭아<br>55.0×79.2<br>매화<br>51.7×69.3<br>국화<br>50.6×68.2<br>서보<br>58.3×45.1<br>방승<br>53.9×45.1<br>쌍서각<br>55.0×48.4<br>전보<br>55.0×37.4 |
|          |          | 기타<br>과실무늬            | 저고리(No. B11291) 겹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          |                       | 저고리(No. B11276) 안고름*                                                               | 화문주 | 평직         | 능직         | —                | —                                                                                                                                                      |

\* 는 육안으로 과실무늬임을 확인하였으나 직조상태가 좋지 않아 꽃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임.

경주 이씨 저고리(No. B11266) 깃·끝동·결마기에 사용된 옷감의 무늬는 가로가 긴 격자무늬



바탕에 두 종류의 원형의 무늬가 나타난다. 〈Fig. 41〉의 왼쪽 무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과 영지, 나비, 호리병박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Fig. 41〉의 오른쪽 무늬는 모란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대칭의 불수감 한 쌍, 작은꽃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무늬는 불수감의 곡선적인 형태와 작은 꽃송이가 들어 있는 점, 가로가 긴 격자무늬가 바탕으로 사용된 점 등에서 〈Fig. 42〉<sup>10)</sup>의 창녕 조씨 저고리(No.1) 길·소매·깃의 무늬와 유사하다.



〈Fig. 41〉 꽃과 과일무늬  
저고리(No. B11266) 깃·끝동·결마기



〈Fig. 42〉 과일과 꽃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No. 1) 길·소매·깃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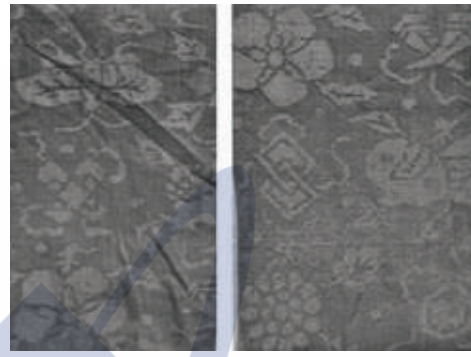
〈Fig. 43〉은 결마기(No.B11289) 길감·깃·겉고름과 저고리(No.B11269) 깃·결마기의 무늬이다. 모란, 매화, 복숭아, 석류, 쌍서각, 전보, 방승, 서보의 여덟 가지 단위무늬를 격자형으로 반복하였다. 창녕 조씨 저고리(No.6-1, 6-2, 10, 15, 20) 삼회장 무늬인 〈Fig. 44〉<sup>11)</sup>는 매화, 국화, 복숭아, 석류, 쌍서각, 전보, 방승, 서보, 나비 등 열 가지 단위무늬를 격자형으로 반복하는 형태이다. 〈Fig. 43〉과 모란을 제외한 단위무늬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세부형태가 유사함은 물론 2열로 단위무늬를 배열하는 구성이 흡사하다.

10) 여주박물관(2011). op. cit. p. 136.

11) Ibid. p. 144.



〈Fig. 43〉 꽃·과실과 보배무늬  
결마기(No. B11289) 겹감·깃·겹고름  
저고리(No. B11269) 깃·결마기



〈Fig. 44〉 꽃·과실과 보배무늬  
창녕 조씨(1721~1742년) 저고리  
(No. 6-1, 6-2, 10, 15, 20) 삼회장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44

## 2. 동물무늬

### 1) 상상동물무늬

#### (1) 용무늬[龍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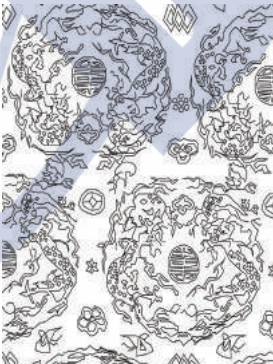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용무늬는 〈Table 14〉와 같다. 〈Fig. 45〉는 저고리(No. B11266) 겹감, 누비저고리(No. B11291) 안고름의 무늬이다. 좌우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용이 원형을 이루고 중앙에는 작은 원형의 수(壽)자를 넣어 주무늬를 구성하였다. 용머리의 방향이 한 줄씩 위아래로 번갈아 위치하도록 배열하였으며 중앙의 수(壽)자도 두 가지 형태가 한 줄씩 번갈아 배열되었다. 원형의 주무늬 사이사이에는 구름무늬가 보조무늬로 배치되었다.

누비저고리(No. B11285) 겹감·깃의 무늬인 〈Fig. 46〉도 〈Fig. 45〉와 마찬가지로 좌우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용이 원형을 이루고 중앙에는 작은 원형의 수(壽)자를 넣어 주무늬를 구성하였으며, 주무늬 그 사이사이에는 구름이 보조무늬로 배치되었다. 수(壽)자는 한 가지 형태로 반복되며, 용의 꼬리의 묘사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누비저고리(No. B11292) 겹감무늬인 〈Fig. 47〉도 주무늬의 형태는 동일하나 구름무늬 대신 여의, 전보, 방승, 단서각, 작은꽃 등의 보배무늬가 보조무늬로 배치된 것이 다르다.

이밖에 저고리(No. B11266) 겹고름의 용무늬는 고름에 사용된 사레이므로 전체무늬는 알 수 없으나 곡선적이며 비늘이 표현되어 있는 용무늬의 일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4〉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용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동물<br>무늬 | 상상<br>동물<br>무늬 | 동근<br>용과<br>구름<br>무늬 |  <p>〈Fig. 45〉<br/>저고리(No. B11266) 겹감<br/>누비저고리(No. B11291) 안고름</p> | 화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180×88           | 85×73               |
|          |                |                      |  <p>〈Fig. 46〉<br/>누비저고리(No. B11285) 겹감·깃</p>                      | 화문주 | 평직        | 4매<br>경능직 | 220×105          | 100×87              |
|          |                | 동근<br>용과<br>보배<br>무늬 |  <p>〈Fig. 47〉<br/>누비저고리(No. B11292) 겹감</p>                       | 화문주 | 평직        | 4매<br>경능직 | 170×115          | 80~89<br>×<br>93~98 |
|          |                | 기타<br>용무늬            | 저고리(No. B11266) 겹고름                                                                                                                                 | —   | —         | —         | —                | —                   |

### 3. 자연산수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자연산수무늬는 <Table 15>와 같다.

#### (1) 구름·물결과 보배무늬

<Fig. 48>는 저고리(No. B11268) 겹감·깃에 나타난 구름과 태극무늬이다. 구름무늬는 태극에 구름이 만(卍)자처럼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각 구름마다 물고기와 파도, 경보 등의 보배무늬로 이루어져있다.

<Table 15> 경주 이씨 묘 직물의 자연산수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자연<br>산수<br>무늬 | —   | 구름·<br>물결과<br>보배<br>무늬 |  | 화문능 | 4매<br>경능직 | 4매<br>위능직 | 76×40            | 구름·태극<br>44×35   |

<Fig. 48> 저고리(No. B11268)  
겹감·깃

### 4. 기물무늬

#### 1) 보배무늬[寶紋]

##### (1) 꽃과 보배무늬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는 <Table 16>과 같다. <Fig. 49>은 저고리(No. B11271) 겹감의 무늬이다. 국화가 중심에 배치되고 그 주위를 보배무늬가 둘러싸고 있는데, 위는 보병, 아래는 반장을 배치하고 좌우에 방승, 서보 등 세 개의 보배무늬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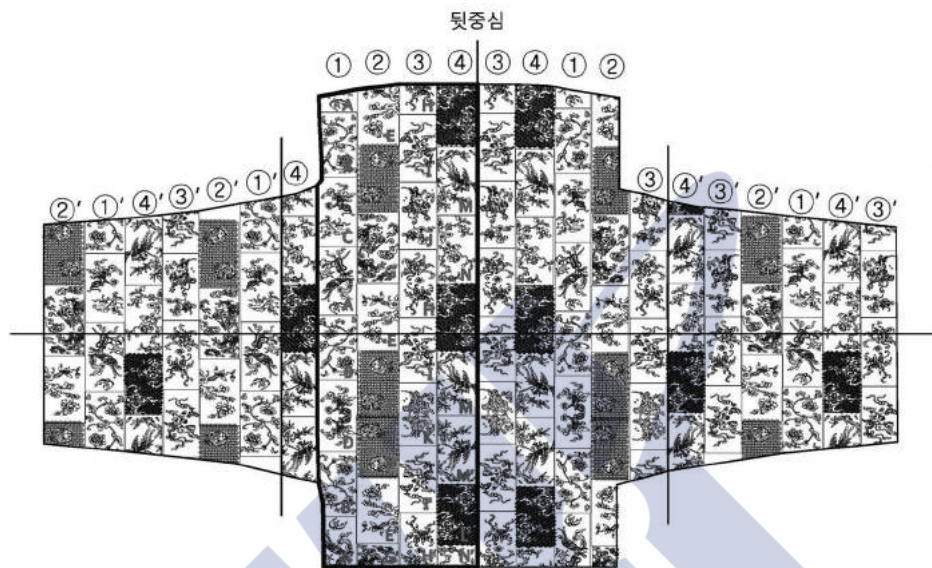
〈Table 16〉 경주 이씨 묘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유물                                                                                                                   | 직물명 | 직물조직           |                | 반복<br>단위<br>(mm) | 개별<br>단위<br>(mm) |
|----------|----------|--------------------------------|----------------------------------------------------------------------------------------------------------------------|-----|----------------|----------------|------------------|------------------|
|          |          |                                |                                                                                                                      |     | 바탕             | 무늬             |                  |                  |
| 기물<br>무늬 | 보배<br>무늬 | 국화와<br>일반<br>보배<br>무늬<br>(원형)  | <br>〈Fig. 49〉<br>저고리(No. B11271) 겹감 | -   | -              | -              | ?×113.3          | 86×94            |
|          |          | 동·식물·<br>자연<br>산수와<br>보배<br>무늬 | 〈Fig. 50〉<br>저고리(No. B11283) 겹감·깃                                                                                    | 화문단 | 5매<br>경수<br>자직 | 5매<br>위수<br>자직 | -                | 105~120<br>×60   |

## (2) 동·식물·자연산수와 보배무늬

〈Fig. 50〉은 저고리(No. B11283) 겹감·깃의 무늬이다. 〈Table 17〉에 정리된 식물무늬(연꽃, 모란, 석류, 대나무), 동물무늬(용, 봉황, 새), 자연산수무늬(괴석, 파도, 물결, 구름), 보배무늬(화주, 파초선, 호로, 어고, 영지, 방승, 애엽, 서각 등), 기하무늬(귀갑무늬, 마름무늬) 등이 조합된 열 네 개의 단위무늬가 하프 드롭(Half Drop) 형태로 배열되었다. 몸판은 〈Fig. 50〉의 ①, ②, ③, ④ 순서로 네 줄이 반복 배열되었으며, 소매는 몸판의 배열이 180° 회전되어 배열되었다. 열 네 개의 단위무늬가 배열된 규칙성을 규명하기 위해 〈Fig 51〉처럼 열 네 개의 무늬를 알파벳 A부터 N으로 표시하여 배치해보았다. 열 네 개 무늬 중 D와 K가 〈Fig. 52〉처럼 각각의 상하 대칭을 이루는 점에 주목하고, 대칭축을 좌우로 연장하면 그 축을 기준으로 모든 무늬들이 상하로 대칭되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칭축은 〈Fig. 53〉처럼 저고리(No. B11283) 앞길에 가로 방향으로 단 한 번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직물은 제직 당시 앞·뒷길이나 소매의 앞·뒤판을 구분하는 화장 선을 고려하여 대칭으로 직조되었으나 그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저고리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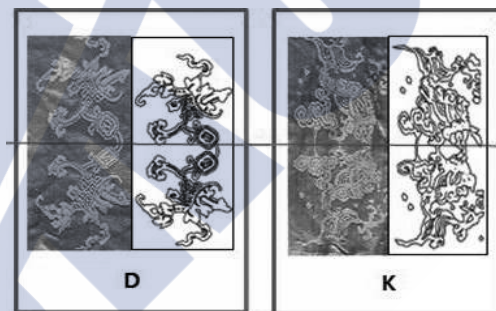




〈Fig. 50〉 저고리(No. B11283)의 무늬 배열



〈Fig. 51〉 저고리(No. B11283)의 무늬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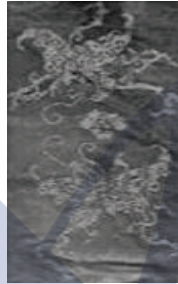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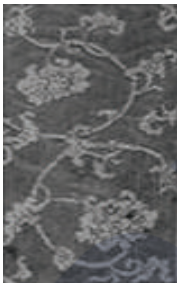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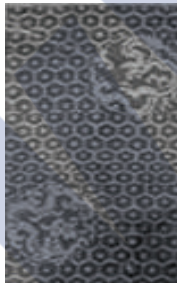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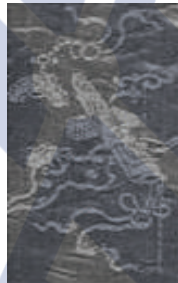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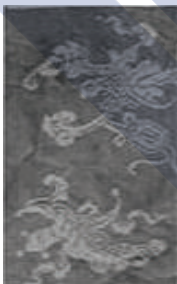


〈Fig. 52〉 상하 대칭을 이루는 D와 K



〈Fig. 53〉 저고리(No. B11283)상 무늬의 대칭축(가로선)

〈Table 17〉 저고리(No. B11283) 겹감·깃에 나타난 14가지 단위무늬

|   | 1                                                                                                                        | 2                                                                                                                 | 3                                                                                                              | 4                                                                                                                       |
|---|--------------------------------------------------------------------------------------------------------------------------|-------------------------------------------------------------------------------------------------------------------|----------------------------------------------------------------------------------------------------------------|-------------------------------------------------------------------------------------------------------------------------|
| A |  <p>〈Fig. 54〉<br/>파초선+호로, 어고, 새</p>     |  <p>〈Fig. 58〉<br/>모란, 괴석</p>     |  <p>〈Fig. 61〉<br/>나비 등</p>   |  <p>〈Fig. 65〉<br/>마름무늬, 사합여의형 구름</p> |
| B |  <p>〈Fig. 55〉<br/>연꽃</p>               |  <p>〈Fig. 59〉<br/>귀갑무늬, 용</p>   |  <p>〈Fig. 62〉<br/>피리 등</p>  |  <p>〈Fig. 66〉<br/>봉황, 대나무</p>       |
| C |  <p>〈Fig. 56〉<br/>새, 영자+방승, 애엽+서각</p> |  <p>〈Fig. 60〉<br/>용+구름, 화주</p> |  <p>〈Fig. 63〉<br/>파도 등</p> |  <p>〈Fig. 67〉<br/>모란, 석류, 괴석</p>   |
| D |  <p>〈Fig. 57〉<br/>새, 영자+방승</p>        |                                                                                                                   |  <p>〈Fig. 64〉<br/>파도 등</p> |                                                                                                                         |



### Ⅲ. 맺음말

진주 류씨(晋州 柳氏) 참판공 정(挺)의 정부인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옷감 무늬의 종류는 주무늬를 기준으로 식물무늬(꽃무늬, 과실무늬, 과실과 꽃무늬), 동물무늬(상상동물무늬), 자연산수무늬(구름무늬, 파도무늬), 기물무늬(보배무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꽃무늬는 총 32건으로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옷감 무늬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꽃무늬 중에서도 연꽃무늬와 모란무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은꽃무늬 7건, 매화무늬 6건, 사계절꽃무늬 2건, 큰꽃무늬 1건 등이다. 꽃무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종류는 연꽃넉쿨무늬로 7건이 나타났다. 모란무늬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연꽃이나 새 등 다른 무늬와 함께 구성되었다.

과실무늬는 총 27건(과실과 꽃무늬, 꽃·과실과 보배무늬 포함)으로 복숭아, 석류, 불수감, 여지, 포도 등의 매우 다양한 과실이 활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과실무늬는 원주원씨 원익손(元翼孫: 1722-1783년)의 정부인 창녕 조씨(1721-1742년) 묘에서 출토된 과실무늬와 유사한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는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창녕 조씨 묘에서 출토된 직물 무늬와 흡사하다.

동물무늬는 총 5건으로, 겹고름에 활용되어 전체무늬를 확인 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서 한 쌍의 용이 원형을 이루고 중앙에 작은 원형의 문자를 넣어 주무늬를 구성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보조무늬로 구름무늬나 보배무늬를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자연산수무늬는 총 1건이다. 구름·물결과 보배무늬가 나타났다.

기물무늬는 총 2건이다. 동·식물·자연산수와 보배무늬, 꽃과 보배무늬가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의 출토 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무늬로 식물무늬(연꽃, 모란, 석류, 대나무), 동물무늬(용, 봉황, 새), 자연산수무늬(괴석, 파도, 물결, 구름), 보배무늬(화주, 파초선, 호로, 어고, 영지, 방승, 애엽, 서각 등), 기하무늬(귀갑무늬, 마름무늬) 등이 조합된 열 네 개의 단위무늬를 하프 드롭(Half Drop) 형태로 배열한 무늬가 나타났다.

한편 보조무늬로는 까치, 나비, 다람쥐, 물고기 등의 동물무늬, 수(壽)자와 같은 문자무늬, 구름 등의 자연산수무늬, 보배무늬와 같은 기물무늬, 격자무늬, 귀갑무늬, 마름무늬, 창살무늬, 태극무늬 등의 기하무늬도 활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 출토 옷감의 무늬는 원익손의 부인 창녕 조씨(1721-1742년) 유물과 흡사하다.

또한 의원군 부인 안동 권씨(1664-1722년), 밀창군(1677-1746년), 남오성(1643-1712년) 묘와 유사한 유물이 나타난다. 더불어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문단의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문직물의 비율이 높은 경주 이씨의 유물은 직물 무늬를 기준으로 볼 때 18세기 초·중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 심연옥(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 여주박물관(2011).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여주: 여주박물관.
- 안지원(1999).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구름무늬의 상징성 및 조형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성남, 한국.
- 박성실(2004).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고찰. 한국 복식, 22, 115-187.

## Textile Patterns of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Tomb of Lee's clan from Gyeongju, wife of Jeong Ryu

Eunji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From the tomb of a woman from Gyeongju Lee's clan, the wife of Ryu Jeong from Jinju Ryu's clan, 50 pieces of costume were excavated. 33 relics out of them were made of patterned fabric. Among the kinds of fabric used in the costume found in the tomb of Lee family originated in Gyeongju, total 29 kinds of patterns were found except for five ones that are patterned but hard to be identified as the fabric condition is not good. The main patterns put in the fabric can be classified into plant patterns, animal patterns, Natural-landscape, or object patterns. Floral patterns are total 32 kinds, so they form the largest part. Among the floral patterns, lotus and peony patterns are the most as eight are found each. Seven are small floral patterns, six are plum blossom patterns, two are floral patterns representing four seasons, and one is a big floral pattern. Total 27 fruit patterns are observed. A variety of fruit patterns are used, for example, peach, pomegranate, fingered citron, lychee, or grape. Total five animal patterns are found. Four out of them are round dragon patterns.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by the round shape and small round letters on the center to form the main pattern. As auxiliary patterns, cloud or treasure patterns are arranged, too. Natural-landscape patterns and treasure patterns are found two for each. Particularly, a new type of pattern is seen there that has not been found in any other costume excavated so far. That is a pattern arranged in a form of half drop with 14 units of patterns combining the lotus, peony, bamboo, dragon, phoenix, bird, rock, waves, tides, cloud, and also treasure.

**Key Word:** traditional Korean pattern, Korean traditional textiles pattern, textiles pattern in Joseon period

---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1 :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

한미경\*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논문요약

이 연구는 조선후기 북학파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수신서 『사소절(士小節)』의 「사전(士典)」을 대상으로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였다. 활자본 『사소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은 크게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관련 예의, 선비로서의 의복을 통한 격식과 의관 정제의 중요성, 의복에 대한 마음가짐, 시대상 등과 같은 부분으로 분류 기술하고 있다. 2) 전체 「사전」 581장 중 39장(전체 대비 6.71%)에서 복식(服飾)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복식(服食)」과 「동지(動止)」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복식(服飾)관련 기록이 조사되었다. 의복과 장신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복식(服飾)관련 기록 중 의복(총 24장, 61.53%)과 관련된 작은 예절 기술이 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3) 의복과 장신 관련 17개의 용어와 2개의 경전과 4명의 일화 등의 인용도 조사되었다. 이 연구가 『사소절』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더불어 복식(服飾)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덕무, 사소절, 사전, 복식(服飾), 복식기록

---

\*Author: Mi-Kyung Han, email: bib4u@kgu.ac.kr

투고일 : 2017. 4. 10

심사개시일 : 2017. 4. 14

심사완료일 : 2017. 4. 28

게재확정일 : 2017. 5. 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박제가(朴齊家), 이서구(李書九), 유득공(柳得恭)과 더불어 ‘사가시인(四家詩人)’ 중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까지 이름을 날린 조선후기 북학과 실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당시 북학과 실학자들이 자연에 대한 신지식과 이용후생적 사고 등에 집중하면서 예와 관련된 저술을 많이 하지 않은 반면 이덕무는 예와 관련하여 『사소절(士小節)』과 『예기억(禮記臆)』을 저술하였다. 이 두 저서는 후에 후손에 의하여 이덕무의 대표적인 여러 저작을 모아 편찬 간행한 총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의 권6-8과 권27-31에 실려 전하고 있다.

그중 『사소절』은 이덕무가 34세에 지은 것으로 선비와 부녀자 및 어린아이들의 작은 예절 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예기억』은 36세에 지은 것으로 ‘예(禮)’에 대한 기록서인 『예기(禮記)』를 연구한 저서이다. 특히 『사소절』은 선비와 부녀자 및 어린아이들의 성품과 행동, 의복과 음식(服食), 사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와 관련한 소소한 작은 예절을 기록한 저술이며, ‘소학(小學)’적인 이덕무의 생각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예절상 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복식(服飾)의 기본적인 목적은 몸의 보호와 꾸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시대의 복식(服飾)은 옷을 만들거나 차려입으면서 사회적인 기풍과 양식을 보여 주기도 하며, ‘의복 예절’이라 할 수 있는 시대와 사회 및 상황과 장소 등에 따른 예절의 단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복식(服飾)은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이며 사회상과 예절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사소절』은 복식(服飾)의 유래나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저서는 아니지만 작은 예절에 대한 기록의 일환으로 당시 여러 방면의 예절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성품이나 행동, 언어 등과 함께 복식부분 또한 다루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덕무의 수신서인 『사소절』에 대한 저술 목적과 구성 및 현전 상황을 고찰하고, 『사전(士典)』편을 대상으로 의복과 장식 등에 대한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덕무에 대한 고찰은 역사적연구법과 문헌연구법으로 진행하고 『사소절』의 저술 목적과 계통적 분류와 구성 및 현전 상황은 문헌연구법과 서지적 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사소절』의 복식(服飾)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는 내용분석적 연구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소절』은 「사전(士典)」과 「부의(婦儀)」 및 「동규(童規)」의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사전」과 「부의」의 경우 ‘복식(服食, 이하 이 경우 한자 표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복(服)’ 부분에서 복식(服飾)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소절』의 여러 부분에서도 의복과 장신 등과 관련한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소절』 중 「사전(士典)」 전체를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둘째, 『사소절』은 이덕무의 원고 외에 여러 저작을 모아 아들 광규(光葵)가 편집하고 이완수(李脛秀)가 교정하여 간행한 『청장관전서』 『사소절』(이하 『청장관사소절』)과 『청장관사소절』을 재정리 및 재정비하여 간인한 활자본 『사소절』이 있다. 그 외에 언문본 『사소절(또는 스소절)』, 현토본 『현토사소절(懸吐士小節)』 및 요약본 『사소절지절(士小節之節)』이 있다. 이 연구는 그중 활자본 『사소절』을 대상으로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중 한국 복식의 연구동향에 따르면 복식 종류에 따라 복장과 장식, 의료(衣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sup> 이에 이 연구는 선비의 복장 즉, 의복과 장식 등에 관련된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사전적으로 ‘의복(衣服)’은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으로서 ‘옷’을 의미하며, ‘복식’은 옷과 장신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연구는 『사소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복 외에도 갓, 신 등의 장신 부분 또한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복식’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1) 이경남(1984). 韓國 服飾의 研究 動向. 미출판석사학위논문, 啓明大學校, 서울, 한국, 14.



## II.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이덕무의 저작에 대한 연구와 『사소절』 내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식기록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덕무의 저작에 대한 연구의 경우 『청장관전서』와 『사소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중 일부만 살펴보면, 우선 김영진은 『청장관전서』의 편찬과 체재 및 결락부분을 고찰하고, 일문(逸文)인 「변일민시집발(邊逸民詩集跋)」, 「적언찬(병서)(適言讚(并序))」, 「선서재시집서(蘇書齋詩集序)」, 「여인(與人)」을 고찰하였다. 그 외에 판본이 가장 복잡한 『청비록(淸脾錄)』을 문헌학적(文獻學的)으로 검토하고 『국역 청장관전서』의 『청비록』 텍스트의 선정, 교주 및 번역의 오류를 분석하였다.<sup>2)</sup> 한미경은 『사소절』을 대상으로 먼저 현전본을 조사하고 『청장관사소절』과 활자본 『사소절』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후 이덕무의 『사소절』 원고에서부터 요약본에 이르기까지의 계통적 분류 전개와 각 판본에 대한 서지적 조사와 비교를 진행하였다<sup>3)</sup>

둘째, 『사소절』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사소절』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 연구자 | 년도   | 제 목                                                      | 대상          | 내용                          |
|-----|------|----------------------------------------------------------|-------------|-----------------------------|
| 이을환 | 1986 | 『士小節』에 나타난 女性 言語法道의 研究                                   | •여성         | •언어법도                       |
| 한예원 | 1996 | 『사소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사족가의 규범의식에 대한 일고                       | •사대부 집안     | •규범의식                       |
| 주영애 | 1997 | 사소절(士小節) 부의(婦儀)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분석                     | •여성         | •주생활 관리                     |
| 박영관 | 2002 | 아정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의의: 〈부의(婦儀)〉편을 중심으로 | •여성         | •전통가정교육                     |
| 김균태 | 2008 | 『청장관전서』에 기록되고 있는 소재인물들의 일화(逸話) 연구                        | •사대부<br>•평민 | •인물일화<br>•서술원리<br>•서사구조의 특징 |
| 황복덕 | 2016 | 사소절(士小節)을 통해본 조선 후기 사회상: 놀이, 복식, 잡술을 중심으로                |             | •놀이 복식,<br>잡술 상의 사회상        |

이상과 같이 이덕무의 『사소절』 내용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한 경우는 주로 선비와 여성을 대상으로 언어, 규범, 주생활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

2) 김영진(2014). 『靑莊館全書』 및 其他 李德懋 著作에 대한 文獻學的 再檢討, 고전과 해석, 17, pp.117-144.

3) 한미경(2014). 이덕무의 『士小節』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58, pp.287-316.

한미경(2015). 『사소절』 현전본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pp.57-79.

셋째, 복식기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본의 소설류와 우리나라의 유서류(類書類)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일본의 경우 11세기 헤이안(平安, へいあん) 후궁문학의 쌍벽인 『침초자(마쿠라노 소시)』와 『원씨물어(겐지모노가타리)』 그리고 13세기의 소설 『영화물어(에이가 모노가타리)』와 14세기의 소설 『평가물어(다이헤이키)』를 대상으로 진행한 복식기록 연구가 있다.<sup>4)</sup>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박물학서 『임원십육지』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의 유서(類書) 『성호사설』 및 이덕무의 수신서이자 규율서인 『사소절』 상의 복식기록에 대한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5)</sup> 다만 수신적 작은 예절을 논하고 있는 『사소절』에 등장하는 복식관련 기록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Ⅲ. 이덕무와 사소절

이장에서는 이덕무의 저술과 『사소절』의 저술 배경과 목적 그리고 구성과 현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덕무

이덕무는 1741(영조 17)년 6월 11일 이성호와 반남 박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793(정조 17)년에 사망하였다. 정종(定宗)의 서자인 무림군(茂林君)의 10세손으로 아명(兒名)은 부친의 꿈에 신인(神人)이 종대(鍾大)라는 두 글자를 준 것을 따서 '종대'라 하였다. 자(字)는 무관(懋官), 명숙(明淑), 완산인(完山人 또는 完山子) 등이며, 호는 형암(炯庵), 아정(雅亭), 청장관(靑莊館), 영처(嬰處) 등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휘(諱)는 덕무이다.

4) 문광희(1996), 『침초자』의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 47-64. 문광희(1997a), 『원씨물어』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1), 155-169. 문광희(1997b), 『영화물어』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 35, 293-303.

5) 장숙환(2010),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服飾에 대한 研究 : 服飾之具를 中心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 35-49. 이민주(2011), 『星湖僊說』 「만물문」에 보이는 복식기록 검토: 시각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고대학, 26, 101-145. 황봉덕(2016), 사소절(士小節)을 통해본 조선 후기 사회상: 놀이, 복식, 잡술을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18, 209-237.

38세였던 1778(정조 2)년에 사은 겸 진주사 심엄조(沈念祖)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가게 되면서 당시 청의 학자들과 교유하였으며, 서학(西學)을 연구하고 북학(北學)을 제창하였다. 이덕무는 북학과 실학자 중 중상학과인 이용후생파였으며, 근대사회를 향한 사회의 과도기적 관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증학적인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덕무는 많은 시와 문 등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저술들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2>과 같다.

<Table 2> 이덕무의 저술

| 년도                     | 나이 | 서명                       | 비고                                                                                    |
|------------------------|----|--------------------------|---------------------------------------------------------------------------------------|
| 1759년(영조 35) 2월 4일     | 19 | 「문답록(問答錄)」               | • 중국 복건(福建) 상인인 황삼과의 문답 기록                                                            |
| 1761년 9월 30일           | 21 | 「북산산유람기(北漢山遊覽記)」         | • 남복수와 남홍래와 함께한 북한산성 유람기                                                              |
| 1763년 12월 22일          | 23 | 「칠십리설기(七十里雪記)」           | • 충주에 중부(仲父)와 계부(季父)를 뵈러 가는 도중 지은 글                                                   |
| 1764년 9월 9일            | 24 | 「관독일기(觀讀日記)」             | • 『중용(中庸)』과 고금의 시를 본 매일의 기록                                                           |
| 1766년(영조 42)           | 26 |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 • 6권 2책의 견문 기록                                                                        |
| 1768년 6월 29일           | 28 | 「몽담정공부(夢踏亭共賦)」           | • 박제가, 유연 등과 함께 한 몽담정(夢踏亭)을 유람 후 지은 문장                                                |
| 1768년 10월 4일           | 28 | 「사해여언(西海旅言)」             | • 조니진이 있는 황해도 장연에 가면서 만월대, 연안부(延安府), 해주의 부용당(芙蓉堂), 장산곶, 금사사 등을 다녀온 글                  |
| 1769년                  | 29 | 「초정시고서(楚亭詩稿序)」           | • 박제가의 『초정시고(楚亭詩稿)』 서문                                                                |
| 1771년 9월 24일           | 31 | 「구룡산도중여심계연구(九龍山途中與心溪聯句)」 | • 구룡산을 유람 후 지은 문장                                                                     |
| 1773년 윤 3월 25일         | 33 | 「계사춘유기(癸巳春遊記)」           | • 박지원과 유득공과의 평양유람기                                                                    |
| 1773년 6월 29일           | 3  | 「화성원시고(繪聲園詩稿)」 평         | • 홍대용의 부탁으로 쓴 중국인 객집환(郭執桓)의 「화성원시고(繪聲園詩稿)」 평                                          |
| 1775년 11월 1일           | 35 | 「사소절」                    | • 작은 예절 및 수신서                                                                         |
| 1777년(정조 1) 9월         | 37 | 「예기억(禮記臆)」               | • 「예기」의 어려운 글자와 뜻 중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풀이서                                                   |
| 1777년 10월              | 37 | 「기년아람(紀年兒覽)」             | • 이만운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연표, 세계(世系), 지도 등을 알기 쉽게 증보 편집한 아동용 책                                |
| 1782년 1월 21일 – 12월 27일 | 42 |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           | • 규장각 검서관 임명 후 사근역 찰방 임명 후 한 달에 한번씩 서울과 함양(사근역 소재지)을 왕래한 기록                           |
| 1797년(정조 21) 2월 28일    | —  | 「아정유고(雅亭遺稿)」             | • 이덕무의 시문집<br>• 사후에 왕명으로 간행됨<br>• 8권 4책, 총 150필로 7필은 진상, 8필 집에 보관, 142필은 여러 곳에 두루 나눠줌 |

이덕무는 39세가 되던 1779년에 박제가, 유득공, 서리수(徐理修)와 함께 초대 규장각 검서관으로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이상의 저술 외에도 규장각에 재직하면서 『무예도보통지』와

『해동읍지(海東邑誌)』의 편찬 및 『도서집성(圖書集成)』, 『국조보감(國朝寶鑑)』,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다양한 서적의 정리와 교감에 종사하였다.

한편 그의 아들 광규와 이완수 등 친척과 지인들에 의하여 편집, 교정 및 필사되어 개인 총서로서 『청장관전서』가 편찬되었다. 그 구성은 다음의 <Table 3>와 같다.

<Table 3> 「청장관전서」의 구성

| 권     | 수록사항                 | 권     |                                                     |
|-------|----------------------|-------|-----------------------------------------------------|
| 1-2   | 영처시고(嬰處詩稿)           | 54-61 | 양엽기(盎葉記)                                            |
| 3-5   | 영처문고(嬰處文稿)           | 62    | 서해여언(西海旅言),<br>윤희매십전(輪回梅十箋), 산해경보(山海經補)             |
| 6-8   | 영처잡고(嬰處雜稿), 예기억(禮記臆) |       |                                                     |
| 9-20  | 아정유고(雅正遺稿)           |       |                                                     |
| 21-2  | 편서잡고(編書雜稿)           | 63    | 열상방언(冽上方言),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br>선굴당농소(蟬橘堂農笑), 병정표(丙丁表) |
| 25-6  | 기년아람(紀年兒覽)           |       |                                                     |
| 27-31 | 사소절(士小節)             | 64-5  | 청정국지(蜻蛉國志)                                          |
| 32-5  | 청비록(淸脾錄)             | 66-7  | 입연기(入燕記)                                            |
| 36-47 | 뇌뇌낙서(磊磊落落書)          | 68-9  |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                                        |
| 48-53 |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 70-1  | 부록                                                  |

이상의 『청장관전서』는 이덕무의 저술들을 후대에 전해준 중요한 개인 총서로서 그중 『사소절』은 권27-31에 실려 있다. 이후 『사소절』은 1853년에 최성환(崔瑔煥)에 의하여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권책 구성이 재정비되어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sup>6)</sup>

## 2. 『사소절』

### 1) 『사소절』의 저술

이덕무의 『사소절』 저술의 목적은 「사소절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이덕무는 작은 예절에 대한 당시의 현상을 필두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항시, “사소한 예절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경전의 뜻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작은 예절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멋대로 행해지자 선비들은 염려하고 꺼리는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주자는 이를 걱정하여 『소학』을 저술하였으며, 입교·명륜에서 심술·위의·의복·음식의 예절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작은 예절을 갖추었다.

6) 한미경(2015). 앞의 논문.

〈사소절서〉<sup>7)</sup>

라고 하며 소소한 작은 예절에 대한 당시의 사회상과 그러한 사회상을 걱정하며 저술하게 된 주자의 『소학』 저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소학』 실천상의 어려움과 작은 예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신도 일찍이 『소학』을 삼가 읽어 그것을 준행했지만, 주자보다 6, 7백 년 후에 태어나 궁벽한 고을에서 살고 있을 뿐더러, 고금이 변천하고 풍속이 일정하지 않으며 습관이 더욱 변했는지라,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에 징험해보니 작은 예절에 있어서 잘 실천하지 못할 것이 10에 7, 8이요, 자득해서 잘 행할 것이 겨우 10에 2, 3 정도이다. 잘 행할 것이 적으면 선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잘 실천하지 못할 것이 많으면 악한 일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겠는가? 나 자신이 작은 예절을 닦지 못하고 집안사람들에게 본받을 것이 없음을 늘 염려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한 끝에 모든 것을 책에 적되 번복을 피하지 않고 세세한 것을 지워버리지 않았다. 특히 현인(賢人)이 남긴 교훈을 이끌어대어 잠언으로 여기고 경계하도록 하고, 근래에 있던 요즘 사람의 사실을 적어서 보고 느끼게 하고 있다.〈사소절서〉<sup>8)</sup>

이처럼 이덕무는 자신도 주자의 『소학』을 읽고 준행하면서 느낀 작은 예절 실천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의 작은 예절 실천과 집안사람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사소절』을 저술하게 된 기본 배경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소절』 저술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풍속을 바로잡고 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법칙으로 삼기 위하여 『사소절』을 지었다. 그중 「사전」은 자신을 깨우쳐 되도록 허물을 적게 하기 위하여, 「부인」은 내집 부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규」는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사소절서〉<sup>9)</sup>

즉, 이덕무는 자신과 가정을 위한 작은 예절 법칙의 일환으로 자신과 부인 및 자제들의 수신과 경계 및 훈계를 위하여 규율을 위한 목적으로 『사소절』을 저술한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7) 人有恒言，不拘小節，竊嘗以爲畔經之言也。… 雖然，不拘小節之說肆行，而士無顧忌。於是乎朱子憂之，述小學之書，立教·明倫，以至於心術·威儀·衣服·飲食之禮，皆所以備小節也。

8) 德懋亦嘗謹讀，而持循之。然至于六七百年之下，處于遐僻之鄉，古今迭遷，風俗不齊，習氣彌偷，反諸身而驗諸心，其於小節，不能踐之者，十之七八，有所自得而能行者，亦幾十之二三，其所能行者少，則爲善甚難，其所不能者多，則不幾於爲惡之甚易乎？常思身不修小節，而家人之無則也，惕然而思，載之于冊，不擇其煩複，不刪其委細，以其貧賤之士也，故其所道說，多貧賤之節，而援昔賢遺訓，備箴警也。紀今人近事，資觀感也。

9) 匪敢曰：“範俗而規人，只自爲身家之法則而已。”「士典」所自砥，以期乎寡過，「婦儀」以之警戒室婦，「童規」所以訓夫子弟，茲亦庶幾不墜家大人之教德懋者云。

## 2) 사소절의 구성

『사소절』은 「사전」, 「부의」, 「동규」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청장관사소절』은 5권 2책으로 제1책 권1-2와 제2책 권3은 「사전」, 제2책 권4는 「부의」와 권5는 「동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자본 『사소절』은 8권 2책으로 권1-5는 「사전」, 권6-7은 「부의」 그리고 권8은 「동규」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관사소절』과 최성환의 활자본 『사소절』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사소절」의 구성

| 『청장관사소절』 |   |    | 활자본 『사소절』 |   |    |      |    |    |    |
|----------|---|----|-----------|---|----|------|----|----|----|
| 책        | 권 | 구성 | 책         | 권 | 구성 | 세부구성 |    |    |    |
| 1        | 1 | 士典 | 1         | 1 | 士典 | 1    | 性行 | 言語 | 服食 |
|          | 2 |    |           | 2 |    | 2    | 動止 | 勤愼 |    |
|          | 3 |    |           | 3 |    | 3    | 敎習 | 人倫 |    |
|          | 4 |    |           | 4 |    | 4    | 交接 |    |    |
| 2        | 5 | 2  | 2         | 5 | 婦儀 | 5    | 御下 | 事物 |    |
|          |   |    |           | 6 |    | 1    | 性行 | 言語 | 服食 |
|          |   |    |           | 7 |    | 2    | 敎育 | 人倫 | 祭祀 |
|          |   |    |           | 8 |    | 童規   | 動止 | 敎習 | 敬長 |
|          |   | 童規 |           |   | 童規 |      | 敬長 | 事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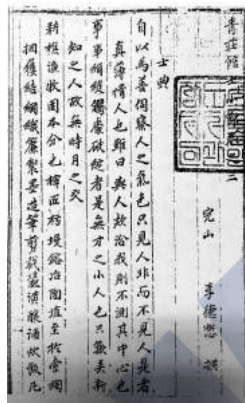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청장관사소절』은 권책의 구성 외에 세부적인 분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활자본 『사소절』은 「사전」과 「부의」 및 「동규」 각각을 성품과 행동(性行)에서부터 언어, 의복과 음식(服食), 행동(動止), 몸가짐(勤愼), 교습, 인륜, 교제(交接), 아랫사람 대하기(御下), 제사, 공경, 사물(事物)에 이르기까지 주제별로 명명하고 세부구성으로 재정리 및 재정비하고 있다.

## 3) 사소절의 현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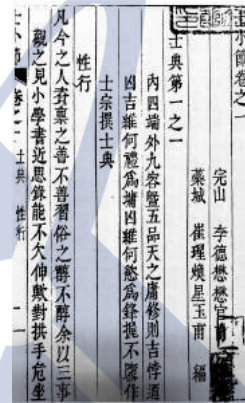
『사조절서』에 의하면 이덕무는 사소절 5책을 저술하여 원고로 남겼으며, 이는 이후 후손에 의하여 『청장관전서』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래되게 되었다(〈Fig. 1〉 참조). 1853년에 최성환이 당시 전래본 『사소절』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구성을 재정비하여 활자본(〈Fig. 2〉 참조)으로 간행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태희가 활자본을 대본으로 언문으로 번역하였다(〈Fig.



3) 참조). 20세기에 들어 백두용의 현토본인 『현토사소절(懸吐士小節)』(〈Fig. 4〉)이 간행되었으며, 하성재가 내용을 산정하여 요약본 『사소절지절(士小節之節)』을 간행하였다(〈Fig. 5〉 참조). 이상과 같은 『사소절』 현전본의 계통적 분류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sup>10)</sup>



〈Fig. 1〉 『靑莊館士小節』 古貴 1570-12



〈Fig. 2〉 『士小節』 古貴17-2-2



〈Fig. 3〉 『사소절』 古朝25



〈Fig. 4〉 『懸吐士小節』 우촌古154-4



〈Fig. 5〉 『士小節之節』 한古朝17-35

10) 이는 한미경(2015). 앞의 논문. p.61 〈표 2〉를 참고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현황을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Table 5〉 「사소절」 현전본의 계통 분류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현황

| 년도   | 저술사항                               | 서명           | 판본  |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현황                                                        |
|------|------------------------------------|--------------|-----|-------------|---------------------------------------------------------------------|
| 1775 | 이덕무<br>저술                          | 사소절          | 초고본 | 필사본<br>5책3면 |                                                                     |
| ⇓    |                                    |              |     |             |                                                                     |
| 1810 | 이광규, 이완수<br>: 초고본의<br>편집, 교정       | 청장관전서<br>사소절 | 정고본 | 필사본<br>5卷2冊 | •古貴 1570-12                                                         |
| ⇓    |                                    |              |     |             |                                                                     |
| 1853 | 최성환<br>편집 간행<br>: 정고본의 재정리,<br>재구성 | 사소절          | 활자본 | 활자본<br>8卷2冊 | •古 031-33<br>•한古朝 17-2-2<br>•古 154-6<br>•의산古 1259-19<br>•한古朝 17-2-1 |
| ⇓    |                                    |              |     |             |                                                                     |
| 1870 | 조태희<br>언문번역<br>: 활자본의 번역           | 사소절<br>소소절   | 언문본 | 필사본<br>1冊   | •古朝25 사소절 64장                                                       |
| ⇓    |                                    |              |     |             |                                                                     |
| 1916 | 백두옹<br>關<br>: 활자본의 현토              | 현토사소절        | 현토본 | 신연활자본<br>1冊 | •1259-13<br>•우촌古 154-5                                              |
| ⇓    |                                    |              |     |             |                                                                     |
| 1926 | 하성재<br>刪定<br>: 정고본의 요약             | 사소절지절        | 요약본 | 목활자본<br>1책  | •한古朝 17-35<br>•일산古 1259-10<br>•古 129-2<br>•동곡古 159-98               |

#### IV. 『사소절』의 복식관련 기록

이장에서는 이덕무가 기본적으로 선비로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 수신하고 작은 예절을 지키기 위하여 저술한 『사소절』 「사전」을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을 내용과 그 내용을 종류, 용어, 인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sup>11)</sup>과 같다.

11)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은 2종의 번역본(이덕무 저, 이동희 편역(2013). 사소절: 선비집안의 작은 예절.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민족문화추진회(1980). 국역청장관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를 참고하고 분석과 편집 작업을 거쳐 정리하였다.

## 1.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 조사

이덕무의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내용은 크게 예의(기본 또는 체면), 마음가짐, 시대상이나 유행, 격식과 마음가짐 등과 같은 부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Table 6〉참조). 그중 내용별로 조사한 대표적인 복식관련 기록이 있는 장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덕무는 기본적인 예의로 의복 관련 작은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중 기본적인 예의는 사복-37, 사동-4, 사동-17, 사동-20, 사동-31, 사동-33, 사동-55, 사동-61, 사동-62, 사근-21, 사근-32, 사접-37, 사언-34, 사복-4, 사복-5에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동-4에서 말을 할 때의 기본적인 예절로서 옷이나 부채 및 허리띠 끝을 끌어 잡거나 돌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다(言時 … 扯衣, 倒擲扇頭, 回繞帶末). (2) 사동-33에서 길에서 부인이나 유모(帷帽)를 드리웠거나 규의(袿衣)를 걸친 궁인 또는 여염집 여인을 만났을 때 주시하거나 결눈질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삼가야 하는 기본 예의를 기술하고 있다(人於路上, 逢鮮衣婦人, 必回頭注目, 甚至宮人, 帷帽里女袿衣, 亦必流眄, 此醜習也. 當遠避, 切勿轉眼, 謹持吾身, 可也). (3) 사동-17에서는 새옷을 입었을 때 자랑하는 태도는 하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다(… 着新衣, 勿顧眄作誇耀狀). (4) 사복-37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쓰고 있는 것이 앞을 가려도 벗지 말아야 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식사예절의 사례라 할 수 있다(與衆人共食一卓 … 雖礙毋免口笠 … ).

둘째, 선비로서의 기본 예절이자 도리로서 체면을 위하여 작은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도리로서의 체면을 기술한 예는 사언-34, 사복-4, 사복5, 사복-15에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사언-34에서 여름에 솜옷을 입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고 말하지 말고, 홑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춥다고 말하지 말아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暑月衣絮, 在坐雖炎, 勿言熱, 見單衣者, 雖寒冬, 勿呼寒也 …). (2) 사복-15에서 남이 가진 공복(公服)과 군장(軍裝)을 공연히 입어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장난치는 일일지라도 체통을 잃음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有人公服軍裝 不可以自身 空然試着 此雖戲事失儀甚大).

셋째, 선비로서의 복식과 관련한 소소한 예절의 하나로서 의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복-1, 사복-14, 사복-16, 사복-17, 사동-72, 사사-22에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사복-1에서는 아무리 나쁜 의복이나 음식일망정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惡衣食無, 一毫厭愧,

心以吾所見, 獨有宗人心溪). (2) 사복-17에서는 무릇 입에 들어가는 것이면 다 음식이라 할 수 있고 몸에 입는 것이면 다 의복이라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凡入口者 皆可謂之食着體者 皆可謂之衣). (3) 사동-72에서는 갓끈이 끊어지고 옷이 찢어지더라도 한탄하거나 애석해 하지 말라고 기술하고 있다(… 纓絕衣裂, 勿懊恨嗟惜).

넷째, 조선후기 의복과 관련한 시대상이나 유행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사복-2와 사동-6에서 조사되었다. 즉, 좁은 옷, 뽀족한 버선, 은으로 장식한 칼집, 비단 바지에 구레나룻을 쓰다듬어서 잘 기르고, 눈썹을 족집게로 곱게 다듬고서 부드럽게 흔들거리며 걸음을 걷고 웃으며 이야기를 잘하며 약간 재치 있는 생각을 잘 하고 선배들을 피하는 자는 바로 인요(人妖) 즉, 요사스럽고 괴상한 짓을 하는 것으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집안 자제들이 이런 무리를 본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경하게 기술하고 있다(窄窄之衣, 尖尖之襪, 銀靽帛袴, 刷鬢鑷眉, 裊裊而步, 工於言笑, 薄有才情, 厭避先輩, 此人妖也. 寧死, 不欲見吾家子弟倣此輩也).

다섯째, 선비로서 의복과 관련한 격식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복-6, 사복-7, 사복-8, 사복-9, 사복-12, 사복-13에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복-6에서 버선 등은 틀어지게 꿰매서는 안되고, 바지 끝을 묶는 대님(袴係)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되고, 적삼에는 수건을 달되 길게 해서는 안되고, 갓에는 끈을 매되 넓게 해서는 안된다고 의복의 격식을 엄격히 기술하고 있다(凡束帶高不至胸, 下不至臍, 勿緊迫勿緩散, 結必同心, 齊其端也).

여섯째, 의관정제와 관련하여 작은 예절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사성-6, 사성-9, 사복-10, 사동-8에서 조사되었다. 대표적으로 의관정제와 관련하여 당시 가식 또는 요염한 자태 꾸밈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의관정제를 역설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사성-9에서는 부박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위의를 가다듬는 사람을 미워하여 조소하며, 저것은 모두 가식이다라고 한다(修飭衣冠, 慎攝威儀者, 浮薄賤夫, 惡而嘲之. 曰彼皆假飾也). (2) 사동-8에서는 군자가 거울을 보고서 의관을 정제하고 위의를 가다듬는 것은 요염한 자태를 꾸미기 위한 일이 아니다(君子之覽鏡, 整衣冠尊瞻視, 非事妖冶也 …).

이상과 같이 이덕무는 복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로서 체면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말할 때, 길에서 쓰개나 너울 등을 쓴 부인 등을 만났을 때, 새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실수하기 쉽지만 엄격한 자세로 소소한 작은 예절을 지켜야함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덕무는 몸에 입는 것으로 의복은 역할을 다한 것이며, 나쁜 의복을 입었거나 옷이 찢어져도 애석해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의복에 대한 이덕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의복에 대하여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덕무는 의관 정제와 위의를 가다듬는 것은

신분의 고하를 떠나 선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작은 예절임을 기술하고 있으며, 군자의 의관 정제는 요염한 자태꾸밈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복 예절로서 지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의복의 시대상이나 유행으로 보이는 좁은 옷, 뽕족한 신 등의 옷매무새와 칼집과 같은 장신과 체면과 격식에 맞지 않은 의복에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6〉 『사소절』 『사전』 복식관련 기록

| 편   | 내용                                                                                                                                                                  | 비고                                                 |
|-----|---------------------------------------------------------------------------------------------------------------------------------------------------------------------|----------------------------------------------------|
| 사소절 | 性行<br>사성-6 ... 의관(衣冠)은 반드시 정제하고...                                                                                                                                  | •내용: 의관 정제<br>•종류: 의복                              |
|     | 사성-9 부박한 천부(賤夫)가 의관을 정제하고 위의를 가다듬는 사람을 미워하여 조소하였다. 저것은 모두 가식이다. ...                                                                                                 | •내용: 의관 정제<br>•종류: 의복                              |
|     | 言語<br>사언-34 여름에 솜옷을 입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덥더라도 덥다고 말하지 말고, 겨울에 솜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춥다고 말하지 말며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士典 服食<br>사복-1 아무리 나쁜 의복이나 음식일망정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
|     | 사복-2 적삼 끝의 한건이 길고 넓으면 나태함을 기르고 일하기에 불편하니 없애는 것이 좋다. 대저 소매와 옷자락이 길면 일하는 데에 크게 방해된다.                                                                                  | •내용: 시대상<br>•내용: 시대상, 유행<br>•종류: 의복<br>•용어: 삼, 한건  |
|     | 사복-3 행등이 짧고 좁아서 바지가랑이 끝만 겨우 가려질 정도면 요망스런 옷이다.                                                                                                                       | •내용: 시대상<br>•종류: 의복<br>•용어: 행등                     |
|     | 사복-4 한가히 있을 때는 아무리 덥더라도 반비만 입지 말고, 과거시험장(科場)에서는 아무리 피로하더라도 도포를 벗지 말라.                                                                                               | •내용: 예의-장소<br>•종류: 의복<br>•용어: 반비                   |
|     | 사복-5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짧은 저고리(短褙)를 위에 끼어 입지 말고, 몹시 더운 날씨라도 옷깃을 열지 말고 짧은 적삼(短衫)만을 입지도 말고, 버선을 벗고 바지 끝을 걷어 올리지도 말라.                                                        | •내용: 예의-날씨<br>•종류: 의복<br>•용어: 단유, 단삼               |
|     | 사복-6 버선 등을 꿰매는 것은 틀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바지 끝을 묶는 대님(袴係)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적삼에는 수건을 달되 길게 해서는 안 되고, 입자(笠子)에는 끈을 매되 넓게 해서는 안 된다.                                               | •내용: 격식<br>•종류: 의복, 장신<br>•용어: 대님, 삼, 입자           |
|     | 사복-7 대저 허리띠를 맬 때는 높아도 가슴위로 올려 매서는 안되고, 낮아도 배꼽까지 내려 매서는 안 되며, 졸라매지도 말고 늦춰 매지도 말며, 매는 부분은 반드시 고를 내고 두 가닥 길이가 같게 하라.                                                   | •내용: 격식: 허리띠<br>•종류: 의복                            |
|     | 사복-8 복건(服巾)의 띠는 반드시 두 가닥으로 하되 두 가닥이 들쭉날쭉하게 말라.                                                                                                                      | •내용: 격식<br>•종류: 의복<br>•용어: 복건                      |
| 사전  | 사복-9 망건이란 머리털을 싸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바싹 죄어매서 이마에 눌린 흔적이 있게 해서는 되며, 늘어지게 매서 귀밑에 흘러진 털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썹을 눌러 매지도 말고 눈꼬리가 위로 치켜들게 매지도 말라.                                 | •내용: 격식<br>•종류: 장신<br>•용어: 망건                      |
|     | 사복-10 갓이 비록 해졌더라도 정제해야 하고, 옷이 비록 남루하더라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예기』에 “군자는 옷만 갖추고 용의(容儀)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였고, 『시경』에 “저 사람은 옷에 몸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였다.                             | •인용: 예기, 시경<br>•내용: 의관 정제<br>•종류: 의복, 장신<br>•용어: 갓 |
|     | 사복-11 사인(士人)의 두상에는 아무리 바쁘고 권태롭다 해도 한시라도 갓을 쓰지 않아서는 안된다. 머리가 형틀에 갇힌 죄인이나 머리털을 풀어헤친 상주는 갓을 쓰지 않아도 좋다. 월천(月川) 조목(趙穆)은 그 자제를 중에 미쳐 갓을 정돈하지 않은 자가 있자, 큰소리로 이렇게 나무랐다. ... | •인용: 월천 조목<br>•내용: 격식-갓<br>•종류: 장신                 |



| 편  | 내용                                                                                                                                                                                                                                           | 비고                                                         |
|----|----------------------------------------------------------------------------------------------------------------------------------------------------------------------------------------------------------------------------------------------|------------------------------------------------------------|
| 士典 | 사복-12 입자를 앞으로 폭 숙여 쓰고 챙 밑으로 남의 기색을 살피는 것은 뿔뿔하고 길한 기상이 아니다. 입자를 뒤쳐 쓰지도 말고, 끈을 움켜잡아 매지도 말고, 흠어 매지도 말고, 귀에 내려오게 매지도 말라.                                                                                                                         | •내용: 격식, 예의<br>•종류: 장신<br>•용어: 입자                          |
|    | 사복-13 입자에 죽영(竹纓)을 드리우는 것은 간결하다. 그러나 시골에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도시에 다닐 때는 불가하다. 복건에 입자를 겹쳐 쓰는 것도 또한 편의하다. 그러나 밖에 나갈 때는 세속을 따를 것이지만 집에 있을 때는 겹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내용: 격식<br>-시골과 도시,<br>-집 안팎<br>•종류: 장신<br>•용어: 죽영(입자), 복건 |
|    | 사복-14 산인(山人) 조연구(趙衍龜)는 학문이 넓고 옛 것을 좋아한 분이다. 그가 일찍이 말하기를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수양산성을 유람하였더니, 성장(城將)이 과상한 옷이라 생각하고 … 소강절(邵康節)이 심의(深衣)를 입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사람이니 지금 사람의 옷을 입을 뿐이다’라고 한말이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는 감히 옛 것에 집착하여 세속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인용: 조연구<br>•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br>•용어: 학창의, 심의           |
|    | 사복-15 남이 가진 공복(公服)과 군장(軍裝)을 공연히 입어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장난치는 일일지라도 체통을 잃음이 매우 크다.                                                                                                                                                                | •내용: 체면<br>•종류: 의복<br>•용어: 공복, 군장                          |
|    | 사복-16 여러 사람과 앉았다가 무슨 일이 있어 먼저 나올 때 신짝이 뒤섞여 있더라도 반드시 자기 신을 신고 남의 좋은 신을 신지 말라.                                                                                                                                                                 | •내용: 절제<br>•종류: 신                                          |
|    | 사복-17 무릇 입에 들어가는 것이면 다 음식이라 할 수 있고 몸에 입는 것이면 다 의복이라 할 수 있다.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
|    | 사복-37 여러 사람이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비록 앞이 가리더라도 갓을 벗지 말며 …                                                                                                                                                                                      | •내용: 예의<br>•종류: 장신<br>•용어: 갓(입자)                           |
|    | 사동-4 말을 할 때는 … 옷을 끌어 잡지도 말며, 부채 머리를 거꾸로 던지지도 말고 허리띠 끝을 돌리지도 말라.                                                                                                                                                                              | •내용: 예의<br>•종류: 의복, 장신-부채                                  |
|    | 사동-5 부채를 확확 휘젓지 말고, 신발을 직직 끌지 말라.                                                                                                                                                                                                            | •종류: 장신, 신                                                 |
|    | 사동-6 좁은 옷, 뽀족한 버선, 은으로 장식한 칼집, 비단 바지에 구레나룻을 쓰다듬어서 잘 기르고, 눈썹을 족집게로 곱게 다듬고서 부드럽게 흔들거리며 걸음을 걷고 웃으며 이야기를 잘하며 약간 재치 있는 생각을 잘 하고 선배들을 피하는 자는 바로 인요(人妖)인 것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집안 자제들이 이런 무리를 본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 •내용: 시대상, 유행<br>•종류: 의복, 장신                                |
| 動止 | 사동-8 군자가 거울을 보고서 의관을 정제하고 위의를 가다듬는 것은 요염한 자태를 꾸미기 위한 일이 아니다. …                                                                                                                                                                               | •내용: 의관 정제<br>•종류: 의복                                      |
|    | 사동-17 … 새로운 옷을 입거든 이리저리 돌아다보며 자랑하는 태도를 짓지 말라.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사동-21 길가다가 … 엮어진 신짝을 보거든 뒤집어놓고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신                                       |
|    | 사동-31 처사(處士) 유형원(柳馨遠)이 말하길 “ … 기질로 인해서 게으르기 때문이다. … 의관을 바르게 쓰고 태도를 의젓하게 하는 일도 잘하지 못한다. …                                                                                                                                                     | •인용: 유형원<br>•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사동-33 어떤 사람은 길에서 고운 옷을 입은 부인을 만나면 반드시 머리를 돌리어 주시하고, 심지어는 궁인의 유모(帷帽) 드리운 것이나 여염집 여인의 규의(袿衣) 걸친 것도 반드시 결눈질하니 그것은 누추한 버릇이다. 마땅히 멀리 피하고 절대로 결눈질하지 말아서 나의 몸을 삼가 가져야 한다.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br>•용어: 유모, 규의                       |
|    | 사동-55 비에 옷이 젖었거든 갑자기 남의 방에 들어가지 말고, 옷이나 갓에 덮힌 눈을 정결한 곳에 털지 말라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장신                                  |
|    | 사동-61 남의 집에서 … 일어나거든 반드시 이불을 개어 예전 자리에다 두고, 그러고 나서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야 한다.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편  | 내용 | 비고                                                                                                                         |
|----|----|----------------------------------------------------------------------------------------------------------------------------|
| 士典 | 動止 | 사동-62 남의 집에서 잘 때에는 ... 적삼과 바지를 벗을 필요는 없다. ...                                                                              |
|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br>•용어: 적삼                                                                                           |
|    | 勤愼 | 사동-72 ... 갓끈이 끊어지고 옷이 찢어지더라도 한탄하거나 애석해 하지 말라.                                                                              |
|    |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장신                                                                                                   |
|    | 人倫 | 사근-21 ... 제사에 참례할 때에는 세수나 옷입는 일을 더디게 해서 남에게 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 •내용: 예의-기본-제사<br>•종류: 의복                                                                                                   |
|    | 交接 | 사근-32 ... 상복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비웃는데 그것은 인자한 마음씨가 아니다. 불우한 사람은 더욱 지성스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여야 한다 ...                           |
|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事物 | 사인-6 ...주인의 아들로 이미 갓을 쓴 장성한 자가 그 아버지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요강인 호자(虎子)에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서, 그 부자는 무례한 자들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교제를 끊고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
|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장신구                                                                                                     |
|    | 交接 | 사접-37 존장 앞에서는 망건을 고쳐 쓰지 말고 옷을 고쳐 입지 말라. 머리털이나 살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事物 | 사접-63 ... 명나라 때 학자 노탁(魯鐸) ... 반쯤 해진 푸른 적삼일랑 경우 걸치고, 반쯤 해진 적삼 입은 어린아이 ...                                                   |
|    |    | •내용: 예의-기본<br>•종류: 의복                                                                                                      |
|    | 事物 | 사사-22 의복과 음식은 자신의 그릇과 분수에 맞게 입고 먹어야 재앙이 없다. 만약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을 늘 생각하는 것은 실로 재앙의 근본인 것이다. ...                    |
|    |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
|    | 事物 | 사사-22 의복과 음식은 자신의 그릇과 분수에 맞게 입고 먹어야 재앙이 없다. 만약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을 늘 생각하는 것은 실로 재앙의 근본인 것이다. ...                    |
|    |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
|    | 事物 | 사사-22 의복과 음식은 자신의 그릇과 분수에 맞게 입고 먹어야 재앙이 없다. 만약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을 늘 생각하는 것은 실로 재앙의 근본인 것이다. ...                    |
|    |    | •내용: 마음가짐<br>•종류: 의복                                                                                                       |

## 2. 복식관련 기록의 분석

『사소절』 「사전」을 대상으로 조사한 복식관련 기록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용어와 경전 또는 인물 일화 등의 인용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Table 6〉 참조).

### 1) 수치적 분석

『사소절』 「사전」에서 조사된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수치적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행'에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 10개 부분의 장과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된 장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사소절』 「사전」 10개 부분과 복식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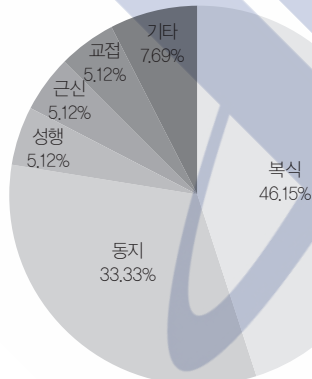
| 구성 | 세부구성 | 장수 | 복식기록 장수   | 세부구성 | 장수 | 복식기록 장수       | 세부구성 | 장수 | 복식기록 장수 |
|----|------|----|-----------|------|----|---------------|------|----|---------|
| 士典 | 1    | 性行 | 44        | 2    | 言語 | 38            | 1    | 服食 | 57      |
|    | 2    | 動止 | 72        | 13   | 勤愼 | 49            | 2    |    |         |
|    | 3    | 教習 | 49        | 0    | 人倫 | 37            | 1    |    |         |
|    | 4    | 交接 | 120       | 2    |    |               |      |    |         |
|    | 5    | 御下 | 29        | 0    | 事物 | 1             | 1    |    |         |
| 총  |      |    | 총 장수: 581 |      |    | 총 복식기록 장수: 39 |      |    |         |

이상의 <Table 7>과 같이 전체 『사소절』 「사전」을 대상으로 조사한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수치적 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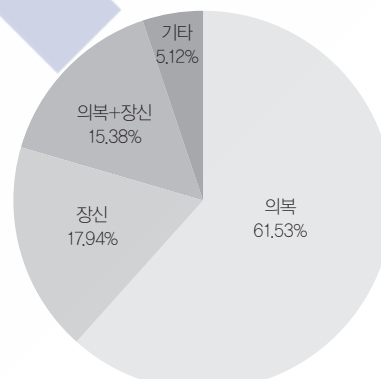
첫째, 『사소절』 「사전」의 전체 총 581장 중 38장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대비 6.71%로서 의복이나 장신을 대상으로 한 복식관련 기록은 전체대비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내용 조사에서 전술하였듯이 이덕무는 복식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소절』 「사전」의 세부구성 총 10개 부분 중 ‘교습’과 ‘어하’ 부분에서는 복식관련 기록이 찾아지지 않았다. 이는 ‘교습’은 공부와 가르침과 관련한 내용이고 ‘어하’는 아랫사람을 대하거나 부를 때의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식(服食)’ 총 57장 중 18장(31.5%, 전체 39장 대비 46.15%)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으며, ‘동지’는 총 72장 중 13장(18.5%, 전체 39장 대비 33.33%)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다(<Fig. 6> 참조). 다만, ‘복식(服食)’은 의복과 음식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복(服)’은 전체가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의복(服)과 행동(動止)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복식’과 ‘동지’에서 가장 많은 복식관련 기록이 나타났다.

셋째, 복식관련 기록을 의복과 장신 및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전체 복식관련 기록 39장 중 의복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24장으로 총 61.53%이며, 장신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7장으로 총 17.94%이다. 그 외 의복과 장신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장은 6장으로 총 15.38%이며, 2장(5.12%)은 신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Fig. 7> 참조). 이를 통해 『사소절』 「사전」은 의복과 장신 중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보다 많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 복식관련 기록 비율



<Fig. 7> 복식관련 기록 종류 비율

## 2) 복식 용어의 분석

전체 『사소절』 「사전」 복식관련 기록 중에 나타난 복식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8〉과 같다.<sup>12)</sup>

〈Table 8〉 『사소절』 「사전」 복식관련 용어

| 출처                                                | 용어       | 종류 | 의미                                                                                                                                                                              |
|---------------------------------------------------|----------|----|---------------------------------------------------------------------------------------------------------------------------------------------------------------------------------|
| 사복-2                                              | 한건(汗巾)   | 의복 | 적삼 끝에 단 소매로서 땀수건이다. 세속적으로 한삼(汗衫)이라 하며, 여기서는 손을 가리기 위하여 두루마기나 여자의 저고리 소매 끝에 흰 형겅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이다.                                                                                  |
| 사복-3                                              | 행등(行藤)   | 의복 | 옛날의 사복(斜幅) 따위로 발에서 무릎까지 감아올리는 물건으로 일명 행전(行纏)이라 한다.                                                                                                                              |
| 사복-4                                              | 반비(半臂)   | 의복 | 반견의(半肩衣)로서 지금의 배자(背子) 즉 도포이다.                                                                                                                                                   |
| 사복-5                                              | 단유(短褸)   | 의복 | 짧으면서 옷고름이 달린 저고리이다.                                                                                                                                                             |
|                                                   | 단삼(短衫)   | 의복 | 짧은 적삼으로 윗도리에 입는 홀옷이다.                                                                                                                                                           |
| 사복-6                                              | 대님(袴係)   | 의복 |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이다.                                                                                                                               |
| 사복-6<br>사복-10<br>사복-11<br>사복-12<br>사복-13<br>사복-37 | 입자(笠子)   | 장신 | 갓으로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이다.                                                                                                                                              |
| 사복-8<br>사복-13                                     | 복건(服巾)   | 장신 | 예전에 유생들이 도포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던 건(巾)으로 검은 형겅으로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뒤에는 넓고 긴 자락을 늘어지게 대고 양옆에는 끈이 있어서 뒤로 돌려 매게 되어 있다.                                                                     |
| 사복-9                                              | 망건(網巾)   | 장신 |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건어 올려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으로 보통 말총, 곱소리 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
| 사복-13                                             | 죽영(竹纒)   | 장신 | 대갓끈으로 아주 가는 땃가지를 마디마디 잘라서 실에 꿰고 그 사이에 구슬로 격자(格子)를 쳐서 만든 갓끈이다.                                                                                                                   |
| 사복-14                                             | 학창의(鶴擎衣) | 의복 |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입던 옷옷의 한 가지로서 흰 빛깔의 창의를 소매가 넓고 가로로 돌아가며 검은 형겅으로 넓게 꾸민 것이다. 보통 창위는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던 옷옷으로 소매가 넓고 뒤 솔기가 갈라져 있다.                                                            |
|                                                   | 심의를(深衣)  | 의복 | 신분 높은 선비가 입었던 옷옷의 하나로서 백세포(白細布)로 만들어 깃과 소매부리 등 옷의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으로 선(褌)을 둘렀다.                                                                                                      |
| 사복-15                                             | 공복(公服)   | 의복 | 관원이 평상시 조정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 즉 조의(朝衣)이다.                                                                                                                                            |
|                                                   | 군장(軍裝)   | 의복 | 군인의 복장이다.                                                                                                                                                                       |
| 사동-33                                             | 유모(帷帽)   | 장신 | 쓰개 또는 너울(羅兀)로서 너울의 근원은 고려의 몽수(蒙首)에 두고 있으나, 고려의 몽수는 당(唐)의 유모(帷帽)와 오호(五胡)의 먹리(霧羅)에 연결된다. 쓰개는 여인의 외출 시, 특히 말을 탈 때 쓰던 것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큰 데 비해, 조선시대의 너울은 엄격한 내외법(内外法)에 따라 착용한 내외용 쓰개였다. |
|                                                   | 규의(袿衣)   | 의복 | 여자의 옷옷이다.                                                                                                                                                                       |
| 사동-62<br>사접-63                                    | 삼(衫)     | 의복 | 적삼으로 윗도리에 입는 홀옷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

12) 용어의 의미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과 NAVER 사전(<http://dic.naver.com>)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소절』 「사전」 중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된 39장 중 구체적인 의복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곳은 총 17장(사복6과 사복13은 중복)이며, 총 17개의 용어가 조사되었다. 의복관련 용어는 적삼, 도포, 저고리, 옷옷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한건’과 ‘행등’과 같이 다소 장신적 성격의 의복관련 용어도 조사되었다. 장신은 ‘복건’, ‘망건’, ‘입자’ 또는 ‘죽영’ 등과 같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나 머리에 두르는 물건 또는 갓과 일부 갓끈관련 용어 등이 나타났다. 특히 장신관련 용어의 경우 「사전」이 선비로서의 작은 예절을 다루고 있으므로 ‘입(笠)’ 또는 ‘입자(笠子)’로 표기한 갓을 의미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으로 「사전」은 선비로서 지켜야 할 작은 예절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기본 예의 등을 기술하면서 여자의 의복 용어도 일부 조사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의복에 대한 기록에서는 ‘의(衣)’로 표기하고 의복관련 기본예절이나 마음가짐 및 격식 등을 주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 3) 인용의 분석

이덕무는 「사소절서」에서 사람들은 항시 “사소한 예절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경전(經傳)의 뜻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13)</sup>라고 밝혔듯이 작은 예절과 관련하여 경전 및 옛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9〉와 같다.

13) 寡其過而顧有所不能. “人有恒言, 不拘小節”, 竊嘗以爲畔經之言也.

〈Table 9〉 『사소절』 『사전』 복식관련 기록의 인용

| 출처    | 인용                             | 인용 내용                                                                                                                                                                         | 기록 내용  |
|-------|--------------------------------|-------------------------------------------------------------------------------------------------------------------------------------------------------------------------------|--------|
| 사복-10 | 『예기(禮記)』                       | “군자는 옷만 갖추고 용의(容儀)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 •의관정제  |
|       | 『시경(詩經)』                       | “저사람은 옷에 몸이 어울리지 않다”                                                                                                                                                          | •의관정제  |
| 사복-11 | 월천(月川) 조목(趙穆) <sup>14)</sup>   | 그 자제들 중에 미쳐 갓을 정돈하지 않은 자가 있다, 큰소리로 이렇게 나무랐다. …                                                                                                                                | •격식    |
| 사복-14 | 산인(山人) 조연구(趙衍龜) <sup>15)</sup> | “학창의(鶴鶯衣)를 입고 수양산성을 유람하였더니, 성장(城將)이 괴상한 옷이라 생각하고 … 소강절(邵康節)이 심의(深衣)를 입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사람이니 지금 사람의 옷을 입을 뿐이다'라고 한말이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는 감히 옛 것에 집착하여 세속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 •마음가짐  |
| 사동-31 | 처사(處士) 유형원(柳馨遠) <sup>16)</sup> | “기질로 인해서 게으르기 때문이다. … 의관을 바르게 쓰고 태도를 의젓하게 하는 일도 잘하지 못한다. …”                                                                                                                   | •의관정제  |
| 사접-63 | 노탁(魯鐸) <sup>17)</sup> 의 시      | … 명나라 때 학자 노탁(魯鐸) … 반쯤 헤진 푸른 적삼일랑 겨우 걸치고, 반쯤 헤진 적삼입은 어린아이 …                                                                                                                   | •예의-배려 |

이상과 같이 『사소절』 『사전』 중 복식관련 기록 총39장 중 경전 또는 인물을 인용한 곳은 5장이며, 총2개의 경전과 4명의 인물의 일화나 시 등을 인용하고 있다. 『예기』는 유가경전으로 예(禮)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자 주석서이며, 『시경』은 춘추시대 민요를 중심으로 지은 최고의 시집으로 인간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덕무는 예와 정서를 다루는 대표적인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인물의 경우 유명한 학자 또는 실학자와 친분이 있는 학자들의 일화와 명나라 노탁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덕무는 복식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함에 있어 경전이나 인물들을 인용한 것은 근거 제시 또는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보다 더 설득력있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전체 『사소절』에는 많은 경전과 인물들의 사례가 인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복식관련 기록의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14) 조목(1524년(중종 19)~1606년(선조3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경상북도 예안 출신.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이다. 평생을 학문 연구에만 뜻을 두어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예안의 도산서원과 봉화의 문암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15) 조연구는 조선 후기 학자로서 자는 경구(景九)이고 호는 경암(敬菴)이다. 임배후(林配厚), 이회경(李喜經), 이덕무, 박제가 등과 교분이 깊었다.

16) 유형원(1622(광해군 14)~1673(현종 14))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다. 서울 출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이다.

17) 노탁(1461~1520)은 중국 명대 홍치(弘治) 15년에 출세하여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를 지냈으며, 자는 진지(振之)이다. 명나라 헌종(憲宗)과 무종(武宗) 때의 성화(成化)와 정덕(正德) 연간에 활동한 시가 유파인 다릉시파(茶陵詩派)이다. 이동양(李東陽)을 비롯한 석요(石瑤), 소보(邵寶), 고청(顧淸), 나기(羅玘), 하맹춘(何孟春)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는 조선후기 북학과 실학자 이덕무(李德懋)의 수신서이자 규율서인 『사소절(士小節)』의 「사전(士典)」을 대상으로 저술목적과 구성 및 현전 상황에 대하여 살피고,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였다. 활자본 『사소절』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복과 장신 기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덕무는 『사소절』 저술의 목적으로 작은 예절에 대하여 자신과 부인이 지키고 경계하며, 어린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따라서 전체 「사전」을 통하여 '성행'에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생활상의 크고 작은 예절에 대한 생각과 도리 등을 기술하고 있다. 내용 조사 결과 크게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에 맞는 의복 예절, 선비로서의 의복을 통한 격식과 의관정제의 중요성, 의복에 대한 마음가짐, 의복의 시대상과 유행 등과 같은 부분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사를 통해 이덕무는 의복과 장식에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예의로서의 의복의 격식과 장소와 때에 맞는 작은 예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체 「사전」 581장 중 39장(전체 대비 6.71%)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세부구성 총 10개 부분 중 '복식(服食)'과 '동지(動止)'부분에서 각각 18장(전체대비 46.15%)과 13장(전체대비 33.33%)으로 가장 많은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다. 또한 의복과 장신 관련 전체 복식관련 기록 중 의복이 24장(61.53%)이고 장신은 7장(17.94%)으로 이덕무는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 중 복식 용어는 총 17장에서 17개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전 또는 인물의 일화 등을 인용한 곳은 5장으로 2개의 경전과 4명의 인물의 일화나 시구절 등을 인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덕무는 예절을 기술함에 있어 근거 제시 또는 실제 상황의 사례 제시하여 설득력에 힘을 실기 위한 방법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북학과 실학자 이덕무의 『사소절』 「사전」은 기본적으로 선비로서 자신의 수신을 위하여 지은 작은 예절서로서 복식관련 기록의 조사를 통하여 의복과 장신에 대하여 크게 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선비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을 위한 예절, 장소나 때를 가리는 격식 그리고 나아가 화려하거나 비싼 의료보다는 의관의 정제라는 의복 예절을 소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은 예절로 중히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덕무의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내용 조사와 수치적 분석 및 용어와 인용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사소절』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더불어 복식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세편 중 선비로서 지켜야할 작은 예절을 다루고 있는 「사전」을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에 이덕무의 복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작은 예절 분석을 위하여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사소절』 전체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후일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士小節』

『士小節之節』

『사소절』

『靑莊館全書』

『懸吐士小節』

김균태(2008).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소재인물 일화(逸話) 연구. 고전문화과 교육, 15, 389-419.

김영진(2014). 『靑莊館全書』 및 其他 李德懋 著作에 대한 文獻學的 再檢討. 고전과 해석, 17, 117-144.

문광희(1996). 『침초자』의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 47-64.

\_\_\_\_\_(1997a). 『원씨물어』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1), 155-169.

\_\_\_\_\_(1997b). 『영화물어』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 35, 293-303.

민족문화추진회(1980). 국역청장관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박영관(2002). 아정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의의:

〈부의(婦儀)〉편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교교육연구학회논문집, 3(2), 281-298.

이경남(1984). 韓國 服飾의 研究 動向. 미출판석사학위논문, 啓明大學校, 서울, 한국.

- 이덕무 저, 이동희 편역(2013). 사소절: 선비집안의 작은 예절.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이민주(2011). 『星湖僊說』 「만물문」에 보이는 복식기록 검토: 시각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고대학, 26, 101-145.
- 李乙煥(1986). 「士小節」에 나타난 女性 言語法道の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25, 107-132.
- 장동우(2005). 이덕무(李德懋)의 예 인식과 그 이념적 지향: 「사소절(士小節)」을 중심으로. 한국 실학연구, 10, 191-217.
- 장숙환(2010).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服飾에 대한 研究: 服飾之具를 中心으로. 한국의상 디자인학회지, 12, 35-49.
- 주영애(1997). 사소절(士小節) 부의(婦儀)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 35(1), 75-8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trieved April 26, 2017, from <https://encykorea.aks.ac.kr>.
- 한미경(2014). 이덕무의 『士小節』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58, 287-316.
- \_\_\_\_\_(2015). 『사소절』 현전본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57-79.
- 한예원(1996). 『사소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족가의 규범의식에 대한 일고. 대동문화연구, 31, 179-203.
- 황봉덕(2016). 사소절(士小節)을 통해본 조선후기 사회상: 놀이, 복식, 잡술을 중심으로. 포은학 연구, 18, 209-237.
- NAVER 사전. Retrieved May 4, 2017, from <http://dic.naver.com>.

## A Study on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in *Sasojeol*(士小節) of Lee Duck-moo's with focus on *Sajeon*(士典)

Han, Mi-Kyu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onggi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and analyze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with focus on *Sajeon*(士典, Norm for scholars) of *Sasojeol*(士小節), which is a book on discipline written by Duck-moo Lee(1741-1793) who belong to the Realist School of Northern Learning in late Chosun period. The investigation of the printed version of *Sasojeol* shows the following results.

- 1) The contents largely comprise the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basic manners and honor, the importance of pursuing proper formalities through attire adjustment as scholars, attitude toward dress, and phases of the times.
- 2) In 39 chapters out of total 581 chapters(accounting for 6.71% of total), the records on dress and ornaments were identified, while more records on this subject was found in the part 'dress and food' and 'Dongji(behaviour)' than in any other parts of *Sajeol*. Among records on dress and ornaments which were investigated, there were more descriptions of minor courtesy skill related to dress(chapter 24, accounting for 61.53% of such records)
- 3) 17 terms, 2 scriptures, anecdotes of 4 person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were investig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s well as bibliographical study on *Sasojeol*,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reference materials for researchers' further study of dress and ornaments

**keyword:** Duck-moo Lee, *Sasojeol*, *Sajeon*(Norm for scholars), dress and ornaments, records of dress and ornaments

# 진주 류씨 류정의 배위 경주 이씨 복식에 관한 연구

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논문요약

2003년 10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27번지에 소재한 진주 류씨(晉州 柳氏) 참판공(參判公) 류정(諱:1684-1753)과 후 배위 경주 이씨(慶州 李氏)의 합장묘(合葬墓)를 새로운 문중 묘역으로 이장(移葬)하기 위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정부인(貞夫人) 경주 이씨의 관(棺) 속에서 47점의 옷이 출토되었다. 경주 이씨는 참판공이 사망한 후 수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생몰년도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이 연구는 경주 이씨의 복식 유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대성을 판단하고 복식사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물의 종류는 결마기와 장저고리를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장옷 2점, 토수 1점, 너른바지 1점, 치마 7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이다. 출토된 저고리 32점은 깃 모양이 목판당코깃 형태이며 다양한 무늬의 옷감으로 만들었다. 앞 시대에 비하여 깃이 더욱 굴러지고 저고리 길이와 품, 소매가 짧아지고 좁아졌다. 이러한 조형성을 통해 경주 이씨가 17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생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소매 끝에 흰색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는 예복용 결마기임이 확인되었으며 천의(薦衣)는 추운 날 방안에서 쉴 때 간편하게 사용하였던 이불의 한 종류로 동일 품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누비로 된 장저고리는 18세기 유물에서 최초로 발견된 자료이다.

주제어: 결마기, 장저고리, 천의, 목판당코깃

\*Author: Lee, Myung-eun, E-mail: joohee320@naver.com

투고일 : 2017. 4. 10

심사개시일 : 2017. 4. 14

심사완료일 : 2017. 4. 28

게재확정일 : 2017. 5. 2

## I. 서론

2003년 10월 29일, 용인시(龍仁市) 처인구(處仁區) 모현면(慕賢面) 일산리(日山里) 27번지에 소재한 진주 류씨(晉州 柳氏) 참판공(參判公) 류정(挺:1684-1753)과 후 배위 정부인(貞夫人) 경주 이씨(慶州 李氏)의 합장묘(合葬墓)를 이장(移葬)하는 작업 중에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류정은 문성공(文成公) 류순정(柳順汀:1459~1512)의 후손으로<sup>1)</sup> 영조 15년(1739)에 형조참판(刑曹參判: 종2품)을 지낸 인물이다. 참판공의 후손들은 흩어져 있던 조상의 묘를 새로운 문중 묘역으로 합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참판공의 관(棺)에서 천금 1점, 명정 조각, 구의 조각 등 총 3점이 수습되었으며 경주 이씨의 관에서는 장옷 2점, 곁마기와 장저고리를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치마 7점, 너른바지 1점, 토수 1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으로 총 47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유물 수량이 많아 동시대 의생활상을 알수 있는 경주 이씨의 유물 47점을 다루고자 한다. 경주 이씨는 정확한 생몰년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참판공이 1753년 사망 후 수년이 지나 경주 이씨가 사망하자 참판공 묘 터를 옮겨 경주 이씨와 합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17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생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아래, 경주 이씨의 복식 유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대성을 판단하고 출토된 복식의 사료적 가치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류정은 류순정 공의 9대손이며, 현재 후손들은 분파(分派)하여 참판공파(參判公派) 지파로 대를 이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종손은 진주 류씨 36세 류광현(柳光鉉)씨이다.

## Ⅱ. 참판공 류정과 경주 이씨 합장묘 유물 출토 경위

참판공 류정(이후 참판공으로 칭함)은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 후삼국 末~고려 初)의 27세(世)이며 문성공(文成公) 류순정(柳順汀: 1459~1512)의 후손으로, 1684년 아버지 류진운(柳振運)과 어머니 전주이씨(全州李氏)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영조 15년(1739)에 형조참판(刑曹參判: 종2품)을 지낸 인물이다.<sup>2)</sup> 참판공은 반남박씨(潘南朴氏)와 혼인하였으나 부인이 일찍 사망하여 경주 이씨를 두 번 째 부인으로 맞았다. 1753년 5월 7일 69세의 나이로, 경주 이씨 보다 일찍 사망하여 월계산(月鷄山) 묘역에 모셔져 백부(伯父) 류창운의 우측에 경좌(庚坐: 동북동 사이를 향함)하여 안치되었다. 후 배위 경주 이씨는 생몰년은 불확실하나 참판공 보다 몇 년 후 4월 4일에 사망하자 참판공의 묘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경주 이씨와 합장하였다고 한다.

이 출토 사례는 이장을 할 때 복식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염습과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장 작업을 진행한 진주 류씨 35세 류기정(柳基貞)씨를 통해 전달 받은 출토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3년 10월 29일, 용인시(龍仁市) 처인구 모현면(慕賢面) 일산리(日山里) 27번지 [월계산(月鷄山)]에 소재한 진주 류씨(晉州 柳氏) 참판공(參判公) 류정(諱: 1684~1753)과 후 배위 경주 이씨(慶州 李氏)의 합장묘를 새로 단장한 문중 묘역으로 이장(移葬)하기 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판공 부부 합장묘 이장 작업은 날씨가 맑은 가운데, 아침 일찍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묘를 시작하였다. 봉분 제거 후 2M 높이의 큰 회곽이 돌출되었으며 오후 3시 경 회곽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2개가 돌출되었다. 한 개의 봉분에 두 개의 관이 있는 형태였다. 관의 위치는 머리가 안치된 곳을 기준하여 오른쪽 관에 참판공이 안치되었으며 왼쪽 관에 경주 이씨가 안치된 상태였다. 두터운 단관(單棺)으로 참판공의 관이 경주 이씨 관 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큰 상태였다. 먼저 참판공의 관 뚜껑을 개관하였더니 구름무늬 비단 옷감[후에 천금으로 확인됨]이 뒤덮혀 있었다. 옷감을 제켰더니 관 속에서 옷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나 관에 있던 옷감들은 만지면 뭉개지듯 허물어져 수습이 어려운 상태였다.

2) 晉州柳氏大宗會 刊(2006). 晉州柳氏歷代人物傳. pp.466~474.



상태가 온전한 천금, 명정 조각, 구의 조각 총 3점을 수습하였다. 뒤이어진 배위 경주 이씨의 관 속에는 다량의 옷이 가득하였다. 초기의 관 내부 상태는 물이 가득 차 있어 옷이 물에 젖은 형태였다. 작업자들이 관에서 유물을 꺼내어 들었을 때 유물 덩어리에서 물이 툭툭 흘러내릴 정도였다. 유물은 모두 수습하였으며 작업을 지휘한 류기정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얻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당시 서울 한남동 캠퍼스) 박성실 교수(당시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에게 출토 사실을 알렸다. 유물 수습이 완료된 후 시신은 부근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산 19번지의 새로 단장한 문중 묘터로 이장하였다.

다음날인 10월 30일에 박성실 교수를 비롯하여 최영선(당시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등의 연구원들이 출토지를 방문하여 수습된 유물을 전달받았으며 참판공 종손 류광현(柳光鉉), 종손의 숙부 류기정(柳基貞), 류기열(柳基悅)씨 등 후손들은 후학들을 위하여 유물 전체를 단국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수습된 유물은 박물관 연구원들과 당시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여 거품 등의 초기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유물의 초기 상태는 상의류 유물은 모두 고름이 부착되어있고 견직물만 남아있다. 저고리 3점[B11266, B11267, B11268]이 끼워진 채 발견되어 삼작저고리의 사례로 보여지며, 2점씩 겹쳐진 저고리도 2건[B11270, B11271 / B11283, B11284]이 있다. 색상의 변화를 보인 유물도 있는데, B11288 저고리와 B11290 저고리, 결마기[B11289]는 거품 때 까지 아청색이 뚜렷이 남아있었던 유물로 거품 후 질게 갈변하여 현재 짙은 갈색 상태로 변화였다. 또한 너른바지[No. B11301]와 저고리 1점[No. B1128]은 붉은 색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으나 건조 과정에서 색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참판공 류정과 배위 경주 이씨 합장묘에서 수습한 유물은 총 50점이다. 이 가운데 천금 1점, 명정 조각, 구의 조각 등 총 3점의 참판공 유물을 제외하면 경주 이씨의 유물은 총 47점이다. 경주 이씨 유물의 종류는 저고리류 32점, 장옷 2점, 토수 1점, 너른바지 1점, 치마 7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 등이다. 유물은 모두 견직물의 상태로 평견직물, 능직물, 단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품시 저고리 사이에 검은 깨와 같은 이물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솜옷의 면솜이 삭아서 찌꺼기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는 식물성 섬유는 모두 퇴화되어 동물성 섬유만 남아있다. 이러한 사례는 17세기 말기 유물인 해평윤씨(1660~1701) 묘 출토 퇴화직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sup>3)</sup>

3) 채옥자 외(2010). 해평윤씨 묘 출토 퇴화직물에 관한 고찰, 성주이씨 형보의 부인 해평윤씨 출토복식,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pp.122~139.



〈Fig. 1〉 회곽 분해 작업



〈Fig. 2〉 경주 이씨 관에서 유물 수습



〈Fig. 3〉 저고리 2작이 끼워진 모습(No.11283-11284)



〈Fig. 4〉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저고리  
(No. B1128)와 너른 바지(No. B11301)



〈Fig. 5〉 아청색 상태의 결마기(No.11289)



〈Fig. 6〉 아청색 상태의 저고리(No.11288)

### Ⅲ. 종류별 복식의 구조 분석

#### 1. 장옷[長衣]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 외출복이다. 총 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점은 옅은 갈색으로 1점은 짙은 갈색으로 갈변된 상태이다. 2점의 크기는 각 부분이 0.5~2cm의 편차를 보여 크기가 거의 같은 편이다. 모두 누비옷으로 안에 솜이 들어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형태는 목판깃, 일자형 배래선, 소매끝의 거들지, 겨드랑이 아래의 삼각무와 넓은 사다리꼴무 등으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장옷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옷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안에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해지는 구성이다.

〈Table 1〉 장옷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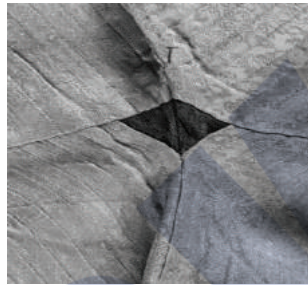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98 | 누비장옷 |  | 누비  | 문능/명주 | 126 | 77   | 44.5 | 28   | 20.5 |
| 2  | B11299 | 누비장옷 |  | 누비  | 추사/명주 | 124 | 75.5 | 46   | 27.5 | 19.5 |

##### 1) 누비 장옷[B11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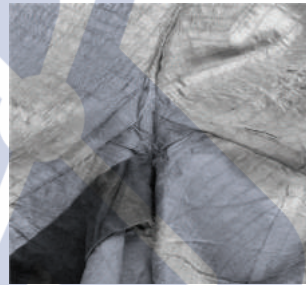
겉감은 소화무늬 문능(紋綾)이고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여 0.7cm 간격으로 곱게 누벼 만든 누비 장옷이다. 겉고름과 안고름은 별단, 별색을 사용하였다. 겉깃 모양은 네모난 목판깃으로 너비 10.2cm의 깃이 쉼 안쪽으로 들어 달려 있으며 깃에는 4cm 너비 동정을 달았다. 이 때 깃머리 끝을 곱게 박음질하였다. 겉섶과 안섶은 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겉길과 안길이 좌우 대칭형이다. 또한 섶이 113cm 정도로 뒷길 도련 너비[106cm] 보다 넓어서 옷을 여밈하였을 때 겉섶의 끝이 바깥으로 돌출된다.

일자형 소매 끝에는 거들지가 달렸는데, 안감과 같은 거친 명주를 사용하여 끝동을 완성한 후 안감 소매 끝에 거들지 19cm 세주(細紬)를 덧붙여 겹 소매쪽으로 16cm를 걷어 올려 3cm 시접 접어주고 남은 13cm 너비 거들지가 완성된다. 화장은 거들지를 펼쳤을 때 93cm, 접으면 77cm가 된다.

겨드랑이 아래에는 2cm 크기의 삼각무가 달렸으며 그 아래에 대형 사다리꼴무 사를 부착하여 도련이 옆으로 넓게 퍼지도록 하였다. 겨드랑이 아래의 삼각무가 2조각으로 된것은 사각접음무가 반 접혀 삼각무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변형되었다. 옷을 지을 때, 섯선을 바느질한 후 누벼주었기 때문에 겹섯과 안섯에는 선단이 없으며 밑도련은 안감 쪽에 1.5cm 너비 별단으로 마무리하였다.



〈Fig. 7〉 2조각의 삼각무가 이어진 겨드랑 모습



〈Fig. 8〉 안감의 삼각무와 아래에 부착한 안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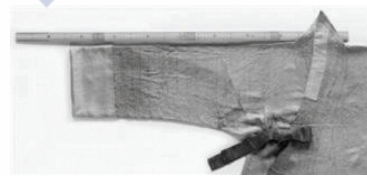
〈Fig. 9〉 안감 소매 끝동에 거들지 부착한 모습



〈Fig. 10〉 겹감에서 본 거들지



〈Fig. 11〉 거들지 시접 접은 모습



〈Fig. 12〉 거들지를 걷어 올린 모습

## 2) 누비 장옷[B11299]

겹감은 추사,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여 0.6cm 간격으로 누벼 만든 누비 장옷이다. 일자형 소매 끝에 거들지가 달려 있는 등 B11298와 형태와 구성이 비슷하지만 거들지 제작법이 다소 다르다. 이 장옷은 겹감은 손목 부위에서 길이가 끝이 나고, 안감의 경우 소매가 겹감보다



길게 밖으로 나와 있게 된다. 안쪽에서 다시 그 위에 거들지감[細紬]을 붙여 겉쪽으로 시접을 접어주고 남은 거들지를 접어 올려 거들지를 완성하였다. 화장은 거들지를 펼쳤을 때 97cm, 접으면 75.5cm가 된다. 진동 아래 옆선에 달린 1.5cm의 작은 삼각무는 화문주로 만들었다. 완성 후 밑 도련의 가장자리를 안쪽에서 1cm 너비 별단으로 마무리 하였다.

## 2. 결마기[肩莫只]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의례용 저고리의 하나이다. 당의(唐衣)보다는 아래 급의 옷으로 소매에 당의처럼 흰색 거들지가 달려있다. 경주 이씨의 유물 중 결마기는 1점이다.

〈Table 2〉 결마기 1점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89 | 결마기  |  | 겹   | 문단/초/명주 | 44 | 75 | 46 | 26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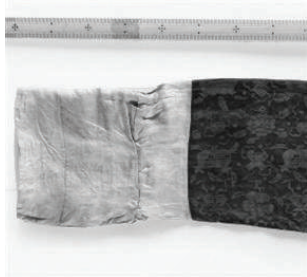
겉감은 꽃·과실과 보배무늬의 문단(紋緞)이고 안감은 거친 명주를 사용하였다. 소매 끝에는 세주(細紬)로 만든 소색 거들지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깃은 너비 9.8cm 정도이며 겹깃이 목판당코깃 형태로 깃머리가 겉썩에 4.5cm 걸쳐지고 끝은 7cm 정도 당코형이다. 깃 머리 끝을 곱게 박음질하였으며 안감쪽의 겹깃 머리는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는 풀칠을 하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깃 선 목둘레를 흠질로 오그려 주어 목둘레가 약간 굴러진 깃 모양이다. 깃에는 3.6cm 너비의 동정이 달렸으며, 동정을 제외한 가장자리를 0.5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흠질로 곱게 상침하였다. 겉썩은 중심선 기준하여 위쪽은 3cm, 아래쪽은 0.7cm 정도 길쪽으로 뉘어서 썩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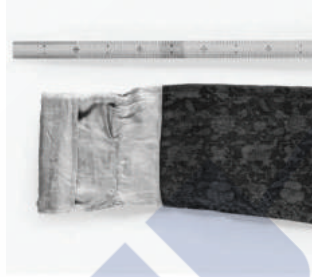
소매에서 옆선으로 이어지는 진동 부분은 다소 각진 상태이며 진동에서 수구까지 완만하게 줄어들어 미세하게 사선형 소매를 이룬다. 소매 끝에는 거들지를 달았는데, 겉감과 안감 소매 끝에는 안감과 같은 거친 명주로 끝동을 만들어 준 후, 다시 안감 끝동 쪽에 세주(細紬) 26cm를 덧붙여 겉쪽으로 걷어 올리면 11.5cm 너비 거들지가 완성된다. 화장에서 거들지를 펼치면 92.5cm 길이가 된다.

진동에서 꺾여 내려온 옆선은 일자형이며, 밑도련은 완만한 곡선이다. 옷을 완성한 후 도련 가장자리를 4cm 간격으로 두 땀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초기 수습 때 아청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청색 결마기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는 짙게 갈변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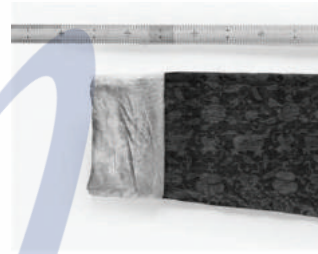
이 유물은 현재는 겹 옷 상태이나 옷 사이에 풀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 옷의 가능성도 있는 옷이다.



〈Fig. 13〉 거들지 펼침



〈Fig. 14〉 거들지 시접 접음



〈Fig. 15〉 거들지 견어올림

### 3. 회장저고리

여자의 기본형 저고리에서 깃, 끝동, 무, 고름 부분을 몸판의 색상과 달리한 것을 말한다. 경주 이씨의 유물 중 회장저고리는 총 6점이며 그 중 1점은 누비 옷이다. 모두 목판 당코깃에 옆선에 무가 달려 있으며 깃, 끝동, 무, 고름이 짙게 갈변되어 별색(別色)으로 장식한 것임을 알수 있다. B11269와 B11287의 경우 끝동이 상색으로 갈변되었으나 원래는 몸판과 다른 색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옷 크기는 길이 34~38.8cm, 화장 70.5~75cm, 품 38.5~41.5cm, 진동 19.5~20.3cm, 수구 12.5~15cm 범위이다.

〈Table 3〉 회장저고리 6점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66 | 회장저고리 |    | 겹   | 문단/명주 | 35   | 70.5<br>(12.3+44.5+4.5+9.3)  | 40   | 20.3 | 15   |
| 2  | B11269 | 회장저고리 |    | 겹   | 문단/명주 | 41   | 74.5(14.5-49-11.5)           | 44.5 | 25   | 19   |
| 3  | B11272 | 회장저고리 |    | 겹   | 초/명주  | 38.8 | 72<br>(13.2+34.5+13.2+3.5+8) | 41   | 21   | 13.8 |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4  | B11273 | 누비<br>회장저고리 |  | 누비  | 문단/문주<br>명주 | 34   | 71<br>(12+44.2+<br>6.5+7.3) | 38.5 | 19.5 | 12.5 |
| 5  | B11274 | 회장저고리       |  | 겹   | 명주          | 34   | 75<br>(13+39+<br>15+8)      | 41.5 | 20   | 14   |
| 6  | B11287 | 회장저고리       |  | 겹   | 초/추사/<br>명주 | 39.5 | 72(14+41.5+<br>8+8.7)       | 43.5 | 24   | 14.2 |

### 1) 회장저고리[No.11266]

깃, 끝둥, 무, 고름을 별색으로 하여 만든 겹 옷이다. 겹감은 둥근 용무늬, 회장은 둥근 꽃무늬의 능견(綾絹) 직물이고 안감은 명주(絹)를 사용하였다. 깃 모양은 목판 당코깃 형태의 넓은 깃에 명주로 된 동정이 달려있다. 깃 크기는 너비 8.3cm, 총길이 67cm로 몸판과 다른 색상과 옷감을 사용하였다. 겹깃 모양은 깃머리가 겹선헌에서 4cm 정도 들어 달리고 깃 끝은 버선코 모양으로 곡선이다. 깃달이할 때 활선 형태로 둥글려 달았으며, 목둘레 부분은 홈질하여 늘어진 만큼 조여주어 깃 모양을 조절하였다. 깃달이 후 겹깃의 끝 부분을 끝끝이 박음질 하여 주었으며, 목둘레 부분은 0.5cm 정도 들어가서 고운 홈질로 상침하여 둘러 주었다. 겹깃 끝에서 10.2cm 올라가서 3.3cm 너비의 명주로 된 동정을 달아주었다. 앞길에 섯달이 할 때 겹선헌은 중심선에서 3cm 들어달고 시접은 섯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소매는 진동에서 꺾여 서서히 줄어드는 사선형 형태로 소매끝에는 9.3cm 너비로 별색의 끝둥을 달았다. 소매 끝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구의 안쪽에 4.5cm 너비의 안단을 덧대어주었다. 배래 시접은 뒤쪽으로 넘겨주었으며 겹감과 안감의 배래는 각각 분리하여 만든 2겹 바느질형태이다.

진동 부위에는 별색으로 ㄱ자형 무를 부착하였다. 소매 어깨선에서 아래로 17.3cm 내려온 지점에 무를 부착하여 소매와 무를 연결한 후 길선에 연결하였다. 배래에서 무로 연결되는 진동점은 각지게 꺾여있으며 진동선의 무 너비와 도련끝 무 너비가 7cm로 동일할 정도로 옆선은 직선 형태이다. 안감의 경우 겹감과 달리 무를 만들지 않고 옷감 폭을 그대로 이용하여 겨드랑이 부분을 간편하게 완성하였다. 옆선과 중심선의 길이 차이가 크지 않은

완만한 곡선 형태이다. 뒷 중심 길이는 35cm이며 어깨선에서 옆선 끝까지의 길이가 34cm 정도로 도련선이 완만하다.



〈Fig. 16〉 안감의 소매 끝에 안단을 덧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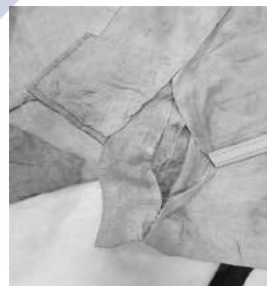
〈Fig. 17〉 옆선에 무가 달라지 않은 안감 모습

## 2) 회장저고리[B11272, B11274]

깃, 끝동, 무, 고름을 별색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겹감에는 ㄱ자형 무를 부착하였으나 안감은 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소매 끝 안감 쪽에 오염 방지용 안단을 덧달아주었다. 전체적으로 No.11266의 구성과 동일하나 솜옷의 가능성이 있는 옷들이다. B11272 저고리는 겹감은 고운 평견직물이고 섶, 끝동, 도련의 가장자리를 두 땀 상침으로 둘러 주었다. 솜옷을 시침하였던 시침실이 남아있다. B11274는 겹감과 안감 사이에 풀솜이 남아있으며 폭 이음선마다 시침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옷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8〉 뒷 중심에 시침실이 남아있는 B11274 저고리



〈Fig. 19〉 겹감과 안감 사이에 풀솜이 남아있는 B11274 저고리

### 3) 회장저고리[B11269, B11287]

기본형 저고리 모양에 깃, 무, 고름을 별색으로 만들었다. 원래 끝동도 별색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몸판과 같은 상색으로 남아있다. 진동 부위 옆선에 ㄱ자형 무를 부착하였으며 안감은 무를 생략하여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B11269 저고리는 몸판은 포도다람쥐무늬 문단, 깃과 무는 꽃과 과실무늬 별단, 끝동과 고름은 연꽃넉쿨무늬 별단이며, 소매 끝 안감 쪽에 8.5cm 너비 안단을 덧달아주었다. 쇄, 끝동, 도련의 가장자리를 두 땀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B11287 저고리는 겹감은 고운 평견 옷감을 사용하였으며, 끝동과 고름은 추사 별단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진동에서 옆선 이음선에 시침실이 남아 있고 겹감과 안감 사이에 풀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옷의 형태로 보여진다.

### 4) 누비 회장저고리[B11273]

몸판은 복숭아무늬 문단이고 깃, 끝동은 연꽃무늬 문주, 무는 석류무늬의 별단, 별색으로 만든 회장저고리이다. 겹감과 안감을 겹쳐서 2cm 간격으로 곱게 누벼주었다. 소매 끝 안단에는 3.5cm 너비 안단을 덧대어 주어 소매 끝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겹감의 겨드랑이 아래 옆선에는 ㄱ자형 무를 부착하였으며 안감은 무를 생략하였다. 누비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누비 형태로 보여진다.

## 4. 누비 저고리

경주 이씨 유물 중 누비 저고리는 모두 7점이다. 이 가운데 1점은 회장저고리 형태이며 1점은 누비옷을 짓기 위해 각 부분을 누벼 놓은 반제품 상태이다. 이 들 유물은 누벼준 후 도련을 별단 처리하여 마무리한 것[편의상 A형이라함]과 옷 형태를 만든 후 누벼준 것[편의상 B형이라함]으로 분류된다. 기본 형태는 목판 당코깃 형태의 넓은 깃에 명주로 된 동정이 달려 있다. 소매 끝에는 끝동이 달렸으며 도련은 완만한 곡선 형태이다. 옷 크기는 길이 41.5~42cm, 화장 73.5~75cm, 품 43~46.5cm, 진동 23.7~24.5cm, 수구 15.5~16.7cm 범위이다.

〈Table 4〉 누비저고리 6점[누비화장저고리 제외]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67 | 누비<br>저고리      |    | 누비  | 문단/명주         | 42          | 74<br>(22+41.5+<br>11.5)     | 44.5 | 24   | 16.7 |
| 2  | B11275 | 누비<br>저고리      |    | 누비  | 화문능/<br>추사/명주 | 40.5        | 73.5<br>(23+34.5+<br>5+10.5) | 43   | 23.7 | 16.5 |
| 3  | B11276 | 누비<br>저고리      |    | 누비  | 추사/문주/<br>명주  | 41.5        | 74.3<br>(25.9+30.8+<br>10.4) | 45.8 | 25   | 15.5 |
| 4  | B11285 | 누비<br>저고리      |    | 겹   | 문능/문단/<br>명주  | 41.5        | 74.5<br>(26+38.5+<br>10.5)   | 46.5 | 25   | 16   |
| 5  | B11291 | 누비<br>저고리      |   | 누비  | 문능/문단/<br>명주  | 42          | 75(26.5+3<br>8.5+10)         | 44   | 24.5 | 15.7 |
| 6  | B11292 | 누비저고리<br>[반제품] |  | 누비  | 문주/명주         | 몸판<br>45×82 | 소매<br>53×48.4                |      |      |      |

## 1) 누비 저고리 A형[B11267, B11275, B11291, B11292]

몸판, 소매, 겹섶, 안섶, 깃을 각각 누벼 준 후 솔기를 이어 붙여 저고리 형태를 만든 후 별단으로 마무리하는 누비기법이다. 각 부분을 누벼준 후 솔기를 이어붙여 완성하기 때문에 겹과 안의 솔기 이음선이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B11292 누비저고리 부분품이 대표적 유물로, 몸판, 소매, 겹섶, 안섶의 부분품을 각각 0.6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빔하였다. 소매는 끝동을 붙인 후 누벼 주었으며 현재 깃 부분은 소실되어 없는 상태이다.

No.11267는 겹감과 안감을 겹쳐 0.5cm 간격으로 곱게 누벼준 저고리이다. 몸판은 화조무늬 문단, 끝동은 여지무늬 별단, 고름은 별색으로 만들었다. 소매 끝 안감 쪽에 7.5cm 너비 안단을 덧달아 더러움을 방지하였다. 섶부터 도련까지 가장자리를 안감 쪽에서 0.6cm 너비

별단을 돌려주어 옷을 완성하였다. 수습 당시 B11266, B11267, B11268와 삼작 저고리 형태로 두 번째에 끼워져 있었다.

B11275는 겹감과 안감을 겹치고 1.2cm 간격으로 섬세하게 누벼준 누비저고리이다. 겹감은 둥근 화문능 옷감을 사용하였으며 깃과 고름은 별색의 추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안감 쪽의 도련을 0.9cm 너비 별단을 돌려주어 마무리 하였다. 겹감과 안감 사이에 풀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숨누비 형태로 보여진다.

B11291은 겹감과 안감을 겹쳐 1.2cm 간격으로 누벼준 누비저고리이다. 몸판은 작은 사계화무늬 문단, 끝동은 화조무늬, 고름은 과실무늬 별단으로 만들었다. 고름은 별색이다. 가장자리를 안감 쪽에서 0.9cm 너비 별단을 돌려주어 옷을 완성하였다.



〈Fig. 20〉 반제품 상태의 B11292



〈Fig. 21〉 안감 쪽에서 별단으로 마무리한 B11275

## 2) 누비 저고리 B형[B11276, B11285]

옷의 형태를 먼저 만든 후 사이에 솜을 두어 누벼주는 방법이다. 누비감으로 마련한 겹감과 안감의 각 부분(깃, 쏘, 소매)을 이어 붙여 옷 형태를 완성한 후 누벼주는 방법이 있으며, 뒷 중심은 붙이지 않고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 지도록 한 후 솜을 두어 누벼준 후 마지막으로 중심선 솔기를 이어 붙여 완성하는 방법도 있다.<sup>4)</sup> 전자는 저고리 처럼 작은 크기의 옷을 누빔하는 기법이다. 후자는 장옷, 중치막과 같이 옷의 크기가 크거나 솜을 두텁게 두어 누빌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옷의 가장자리가 선단 없이 바느질되어 있다.

B11276은 추사 겹감과 명주 안감을 겹쳐 2cm 간격으로 곱게 누벼준 누비저고리이다. 끝동은 과실무늬 문주를 별단으로 하였고 고름은 자주색 별색을 달았다. 누비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원래는 숨누비 형태로 보여진다.

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13).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묘 출토 유물. 서울: 민속원. pp.160~167.

B11285는 겹감은 원룡문 능직견이고 소매 끝동은 포도다람쥐무늬 별단을 사용하였으며 고름은 별색이다. 겹감과 안감을 겹쳐 2.2cm 간격으로 누벼준 누비저고리이다. 안감의 누비선이 일치하지 않고 누비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원래는 숨누비옷의 가능성이 있다. 회장저고리로 분류한 B11273 누비회장저고리도 이와 같은 방법이다. 3점의 누비저고리는 옷 형태를 완성한 후 누벼준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술기 이음선과 누비 완성선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다.

## 5. 누비 장저고리

함께 출토된 저고리에 비하여 길이가 길어 장저고리로 칭하고자한다.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명주를 겹쳐 넓게 누벼준 누비 장저고리이다. 겹깃 모양이 여성 저고리의 특징인 목판당코깃 형태이고 고름은 진갈색으로 별색을 주었으며 소매는 끝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새롭게 발견된 1700년대 여성의 새로운 복식 유형이다. 장옷과 같이 옷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안에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옷 크기는 길이 61~65cm, 화장 75~82cm, 품 51~56.5cm, 진동 29~31cm, 수구 19~20cm 범위이다.

〈Table 5〉 누비 장저고리 5점

|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93 | 누비장저고리 |  | 누비  | 명주/명주 | 65   | 75.5 | 51   | 29.2 | 19.5 |
| 2 | B11294 | 누비장저고리 |  | 누비  | 명주/명주 | 64   | 80.5 | 56.5 | 31   | 20   |
| 3 | B11295 | 누비장저고리 |  | 누비  | 명주/명주 | 61   | 80   | 55   | 30.5 | 19.3 |
| 4 | B11296 | 누비장저고리 |  | 누비  | 명주/명주 | 64.5 | 79   | 56.5 | 31   | 20   |
| 5 | B11297 | 누비장저고리 |  | 누비  | 명주/명주 | 64.5 | 82   | 56   | 30.5 | 19   |



B11293~B11297까지의 5점이 미세하게 크기가 다르고 누비 간격만 차이가 날 뿐 조형성과 바느질 법은 모두 동일하다. 도련은 품 51~56.5cm와 비교하여 64.5~66.5cm의 범위로 약 15cm 차이를 보여 매우 넓어짐을 알수 있다. 소매는 일자형 저고리와 달리 넓은 진동에서 자연스럽게 수구 쪽으로 줄어든다. 소매 끝은 8~13cm 너비의 끝동으로 구성되어 몸판과 색상이 다르게 갈변되어 있다. 고름은 모두 짙은 갈색으로 장식적이다. 이 옷들은 누비 간격이 3~4.5cm 정도로 넓고 풀숨이 남아 있는 등으로 보아 원래는 솜누비로 추정된다. 두텁게 누빔하여 저고리 위에 방한용으로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안감의 뒷 중심선과 누비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좌측과 우측의 옷을 만들어 누비를 완성한 후 마지막으로 뒷중심선을 이어붙인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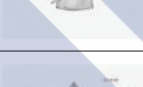
## 6. 저고리

〈Table 6〉의 저고리 14점은 기본 모양은 화장저고리와 같으면서 겨드랑이에는 무가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시각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어 소박해 보이지만 겉감이 고급 옷감이고 소매 끝에는 끝동을 별단으로 달아주었다. 크기는 길이 40~48.5cm, 화장 71.5~77.5cm, 품 43~58cm, 진동 24~27.5cm, 수구 16~19.5cm 범위이다.

저고리 감으로 사용된 옷감은 문단, 추사, 초 등의 고급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명주로 만든 저고리 2점은 발굴 초기에 아청색 저고리였음이 확인되어 매우 귀한 저고리임을 알수 있다. 깃 모양은 목판당코깃 형태이며 끝동은 별단, 고름은 별색 또는 별단으로 만들었다. 소매 끝 안감 쪽에 안단을 덧달아 더러움을 방지하였다. 쇄와 도련의 가장자리는 2땀 상침으로 둘러 주었다.

저고리 B11268, B11271, B11279, B11282, B11286, B11288, B11290은 풀숨이 남아있으며 깃, 쇄, 뒷중심선 등에 시침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원래는 솜옷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굴 당시 B11270은 B11271에 끼워져 2작 저고리 형태였으며 B11283의 저고리 속에는 B11284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B11288과 B11290 저고리는 옷감 사용과 조형성 색상 등이 모두 동일한 저고리로 수습 당시 아청색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저고리이다. B11282의 경우 길이 48.5cm 화장 77.5cm 품 58cm의 크기로 함께 출토된 저고리와 비교하여 매우 큰 편으로 묘주의 옷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옷이다.

〈Table 6〉 민저고리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  | B11268 | 저고리  |    | 겹   | 문능/문단<br>명주       | 43   | 71.5<br>(26+35.5<br>+10)     | 44.5 | 24.5 | 16   |
| 2  | B11270 | 저고리  |    | 겹   | 문단/<br>명주         | 41   | 74.5<br>(22+41.7<br>+10.7)   | 43.5 | 25   | 16.7 |
| 3  | B11271 | 저고리  |    | 겹   | 문주/<br>명주         | 40.5 | 74.5<br>(24.5+36+<br>3.7+10) | 43   | 24   | 16   |
| 4  | B11277 | 저고리  |    | 겹   | 추사/<br>명주         | 42   | 73<br>(28+35<br>+10)         | 47   | 26.5 | 17.5 |
| 5  | B11278 | 저고리  |   | 겹   | 문단/<br>명주         | 43.5 | 75<br>(22.5+<br>42+10)       | 45.2 | 25.6 | 18   |
| 6  | B11279 | 저고리  |  | 겹   | 초/<br>명주          | 46   | 74<br>(25+<br>41.7+7.5)      | 45   | 28.5 | 19.5 |
| 7  | B11280 | 저고리  |  | 겹   | 초/<br>명주          | 43.5 | 75<br>(30+34.5<br>+10)       | 44.5 | 25.5 | 17.5 |
| 8  | B11281 | 저고리  |  | 겹   | 문주/<br>명주         | 40   | 75<br>(24.5+37+<br>2.5+10.5) | 44   | 24.5 | 16.5 |
| 9  | B11282 | 저고리  |  | 겹   | 무문단/<br>문단/<br>명주 | 48.5 | 77.5<br>(19.5+37.5<br>+10.7) | 58   | 27.5 | 19.5 |
| 10 | B11283 | 저고리  |  | 겹   | 문단/<br>명주         | 43   | 73.5<br>(30+33.3<br>+10.2)   | 45   | 25.5 | 18.4 |
| 11 | B11284 | 저고리  |  | 겹   | 문단/<br>명주         | 42.5 | 72.5<br>(25.7+36.7<br>+10.2) | 44.5 | 24   | 17.6 |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
| 12 | B11286 | 저고리  |  | 겹   | 문단/문능<br>명주      | 43.7 | 73(27.5+<br>36.5+9)      | 45   | 25.5 | 16.2 |
| 13 | B11288 | 저고리  |  | 겹   | 명주/<br>문주/<br>명주 | 42   | 76(29+36+<br>11)         | 47.5 | 25.5 | 17.3 |
| 14 | B11290 | 저고리  |  | 겹   | 명주/<br>문주/<br>명주 | 41.5 | 77.5(24.5+<br>41.5+10.5) | 48.5 | 26.7 | 17.5 |

## 7. 치마와 너른바지

경주 이씨 유물 중 저고리는 모두 7점이다. 이 가운데 완형 상태의 치마는 1점이고 나머지는 허리 말기와 주름이 없는 상태이다. 허리 말기를 제외한 각 옷감에 따라 5폭~10폭씩 사용하여 치마통이 323.5~367.5cm 내외의 크기이다.

너른바지는 1점이 출토되었다.

〈Table 7〉 치마 7점과 너른바지 1점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치마폭 | 1폭너비 | 폭수    | 기타 |
|----|--------|------|-------------------------------------------------------------------------------------|-----|------------|-------|-----|------|-------|----|
| 1  | B11302 | 치마   |  | 겹   | 추사/<br>명주  | 103   | 328 | 40   | 8폭    |    |
| 2  | B11303 | 치마   |  | 겹   | 문사/<br>명주  | 104.5 | 362 | 62   | 5폭+52 |    |
| 3  | B11304 | 치마   |  | 겹   | 문능/<br>명주  | 104   | 364 | 40   | 9폭    |    |
| 4  | B11305 | 치마   |  | 겹   | 문추사/<br>명주 | 106   | 353 | 46.5 | 7.5폭  |    |
| 5  | B11306 | 치마   |  | 겹   | 초/명주       | 103   | 330 | 36   | 9폭    |    |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치마폭          | 1폭너비        | 폭수    | 기타                   |
|----|--------|------|-----------------------------------------------------------------------------------|-----|------------------|-----|--------------|-------------|-------|----------------------|
| 6  | B11307 | 치마   |  | 겹   | 항라/<br>명주        | 106 | 380          | 59          | 6폭+28 |                      |
| 7  | B11308 | 치마   |  | 겹   | 문단/<br>명주        | 115 | 362.5        | 66          | 5폭+32 | 허리둘레<br>128×7        |
| 8  | B11301 | 너른바지 |  | 겹   | 문능/<br>문단/<br>명주 | 117 | 허리둘레<br>78×7 | 엉덩이<br>둘레80 | 부리73  | 밑아래<br>39 /<br>밑위 65 |

## 1) 치마

B11308은 치마 중 유일하게 완전한 모양의 치마이다. 겹감은 문단이고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허리 말기와 허리끈은 명주를 겹으로 사용하였다. 총길이 115cm, 허리둘레 128cm, 치마길이 104cm, 치마폭 362.5cm의 크기이다. 안감은 35.5cm 크기 10폭을 사용하였다. 도련 부분을 안감쪽으로 넘겨 2.3cm 너비 제물단으로 마무리 하였다. 주름은 모두 왼쪽을 향한 외주름으로 겹주름 2~2.5cm 안주름 4cm 내외의 크기이다. 주름 상태로 보아 왼쪽 여밈한 옷이다.

치마의 도련은 2가지 유형으로 바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하나는 도련이 제물단으로 마무리 된것으로 B11302, B11304, B11305, B11306, B11308 치마가 이에 해당한다. 겹감을 도련에서 안감쪽으로 넘겨 2.2~2.5cm 너비 제물단으로 마무리한 형태이다. 이때 도련의 끝을 안쪽에서 끝끝이 한번 박은 뒤 시접을 넘겨주어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도련 끝선이 마치 별단을 사용한 듯한 바느질 선이 남아있다.

또 다른 하나는 도련 끝을 별단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B11303, B11307 치마가 해당된다. 옷감을 도련 너비 만큼 좁게 길게 경사 방향으로 재단하여 안감 쪽 도련에 덧대어 도련 끝을 마무리하였다. 치마 끝에 별단을 대어 바느질하였기 때문에 도련 끝선에는 바느질 선이 남아있다.

## 2) 너른바지

너른바지는 주로 상류층에서 정장할 때 밑받침 옷으로 단속곳 위에 입어 하체를 풍만하게

보이게 한 속바지의 일종이다.<sup>5)</sup> B11301는 총길이 117cm로 치마와 크기가 비슷하고 가랑이 1개의 둘레가 146cm로 매우 넓어 너른바지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몸판은 둥근 화문능 옷감으로 만들고 슬란단은 과실무늬 별단을 달아주었으며 안감은 명주로 만들었다. 폭 이음선 마다 시침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옷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겹옷이어서 옆트임 부분에 특별한 선단은 없다. 말기 끝에서 아래로 13cm 내려온 지점에 가랑이 사이에 밑변 18.5cm, 길이 52cm 크기 삼각형 바대가 달렸다.

바지 부리를 완성한 후에 바지 하단에 19cm 너비 슬란단을 덧달아 준 것이 특징이다. 안감쪽 도련 2cm 만큼 바느질 한 후 겹으로 겹어 올려 겹감 부리에서 슬란단을 완성하였다. 슬란단 상부에서 넓게 공그르기하여 바지통에 부착하였는데, 안감에는 슬란단을 부착한 부위에 2~2.5cm 간격의 슬란단 시침선이 드러나있다.

## 8. 천의와 토시

경주 이씨의 유물 중에는 추운 날 방안에서 간편한 이불 대용으로 사용한 천의 1점과 손목 부위 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우는 토시 1쌍이 있다.

〈Table 8〉 천의와 토시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치마폭            | 1폭너비      | 폭수     | 기타 |
|----|--------|------|-------------------------------------------------------------------------------------|-----|----------|---------------|----------------|-----------|--------|----|
| 1  | B11309 | 천의   |  | 누비  | 명주/명주    | 총길이 159       | 도련너비 (1/2) 130 | 깃총 길이 123 | 깃너비 15 |    |
| 2  | B11300 | 토시   |  | 문주  | 명주/문단/명주 | 24(13.5+10.5) | 상14            | 하9.5      |        |    |

천의는 명주로된 겹감과 안감을 겹쳐 4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주었다. 형태는 직사각형 몸판의 좌우에 사다리꼴형 무가 달리고 상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에 작은 주름이 세가닥씩 잡혀있어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고 윗부분에 저고리 깃과 같은 목판깃이 달려 있다. 깃에 동정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누비 간격 등으로 볼 때 원래는 솜 옷으로 추정된다.

토시[吐手]는 상부는 명주 옷감을, 하부는 화조무늬 비단을 사용하여 두 단으로 만들고 안감은 명주 한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부리는 좁고 일자형이며 옷부리로 갈수록 넓어지고

5) 강순제 외(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p.185.

곡선형이다. 상부와 하부 가장자리는 0.6cm 들어가서 곱게 홈질로 상침하여 주었다. 안감의 옆 솔기에 시침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 토시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9〉 기타

| 순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유물                                                                                | 현상태 | 옷감    | 길이                        | 치마폭    | 1폭너비  | 폭수     | 기타 |
|----|--------|-------|-----------------------------------------------------------------------------------|-----|-------|---------------------------|--------|-------|--------|----|
| 1  | B11310 | 소렴 이불 |  | 겹   | 문단/명주 | 길이 258<br>(18+37+203)     | 너비 180 |       |        |    |
| 2  | B11311 | 대렴 이불 |  | 겹   | 문단/명주 | 길이 253<br>(17.5+31.5+204) | 너비 200 | 1폭 57 | 3폭 +26 |    |
| 3  | B11312 | 솜포    |  | 겹   | 명주    | 가로50                      | 세로28   |       |        |    |

이외에 염습제구로 사용된 이불 2점과 빈공간을 채워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솜포 1점이 있다. 이불은 동정-깃-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2점이 길이의 차이만 조금 보일 뿐 크기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다. 솜포는 현재 겹 상태로 있는 유물이지만 원래는 솜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IV. 복식 사료적 가치

### 1. 1700년대 중반 이후의 저고리

앞에서 다룬바와 같이 경주 이씨는 생몰년은 불확실하지만 남편인 참판공이 사망한 1753년 보다는 오래 살았다. 저고리는 경주 이씨가 생활했던 시기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경주 이씨의 유물 중 장저고리를 제외한 저고리는 28점이다. 기본 형태는 17세기의 목판 당코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깃은 너비 7.8~11cm의 범위이며 겹깃은 목판당코깃 형태이다. 목둘레 부분은 홈질하여 늘어진 만큼 조여주고 깃 모양을 조절하여 매우



곡선형이다. 저고리는 옆선이 일자형이고 소매가 수구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다. 이 때 진동점은 각진 상태로 꺾어지며 진동점에서 수구까지 완만한 사선형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경주 이씨의 저고리는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해평윤씨(1660~1701) 묘 출토 저고리와 모양이 비슷하나 <Fig. 22>에서 볼 때 경주 이씨의 저고리가 해평윤씨 저고리 보다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작아지면서 소매도 점차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참판공 류정(1684~1753)의 생존시기와 비슷한 유물로는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파평윤씨(1735~1754)의 저고리가 있다. 저고리의 소매 모양은 좁은 진동과 나란한 직선배래이다.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유물로는 여주박물관 소장으로 창녕 조씨(1721~1742)의 20여점의 저고리가 있다.<sup>6)</sup> 이들 유물은 시각적으로 볼 때 경주 이씨 저고리 보다는 매우 날렵한 모양이다. 옷 길이, 진동 치수 등도 매우 작은 편인데, 파평윤씨와 창녕 조씨의 경우 사망시기가 젊은 나이의 19~20세 정도임이 주목된다. 나이가 들수록 저고리 품과 길이를 크게하여 활동에 편하게 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저고리는 동시대의 젊은 층에서 입은 저고리 모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경주 이씨의 경우 후 배위이지만 남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파평윤씨나 창녕 조씨와 달리 중년의 여인으로 짐작된다. 옷의 크기가 다양하여<sup>7)</sup> 회장저고리의 경우 창녕 조씨의 저고리와 비슷한 치수이다. 반면에 B11266과 함께 삼작저고리로 끼워져 있었던 B11267, B11268의 저고리는 이보다 큰 치수이다. 특별한 때에 입었던 회장저고리는 당시의 유행에 따른 것은 아니었을지, 또한 몸에 맞는 옷과 그보다 넉넉한 품의 옷이 모두 공존하였던 것인지 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에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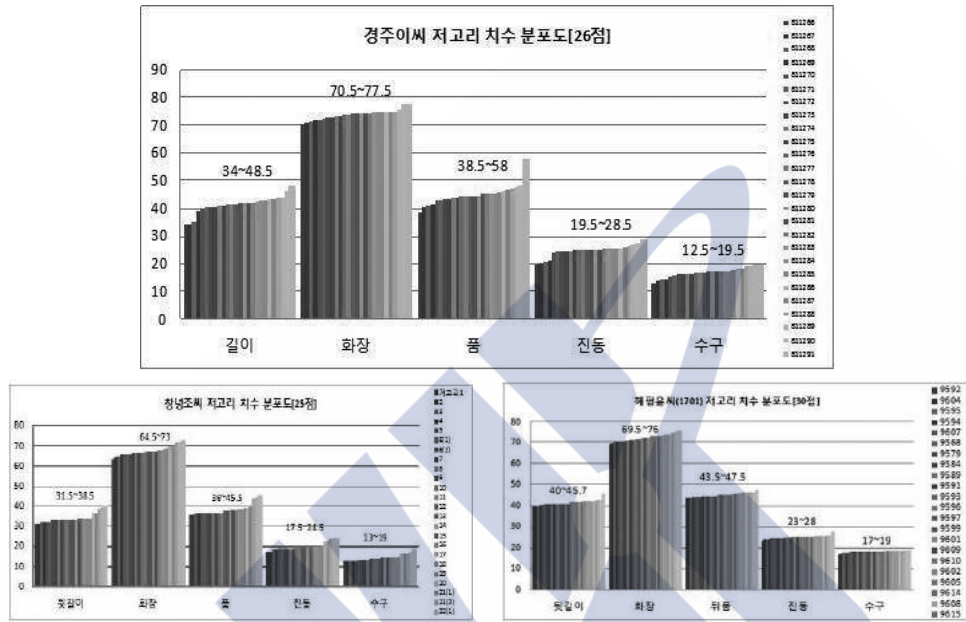
위와 같이 경주 이씨 저고리의 조형성을 볼 때 창녕 조씨와 비슷한 크기와 유형의 저고리가 있으며 남편이 창녕 조씨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였고 이 보다 수년이 지나 경주 이씨가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1760년대 정도까지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풍속화에서는 치마 허리가 겹으로 드러나고 저고리가 신체에 밀착된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Fig. 23>에서 보면 저고리의 색상은 다양하였지만 젊은 여성들은 주로 초록색이나 두록색, 노란색 등을 사용하였으며 짧아진 저고리에는 회장 장식이 많고 특히 자적색 고름을 사용하였다. 중장년은 옥색 등의 옅은 색상의 저고리를 입었는데 밀창군(密昌君: 1677~1746)의 부인인 복천오씨(福川吳氏<sup>8)</sup>)의 영정에서 옥색 저고리를 입은 노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여주박물관(2011). 원주원씨 기증 복식 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152

7) B11282의 경우 길이 48.5cm 화장 77.5cm 품 58cm의 크기로 함께 출토된 저고리와 비교하여 매우 큰 편으로 묘주의 옷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

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韓國服飾, 第二十二號, p.62.



〈Fig.22〉 경주 이씨, 창령조씨, 해평윤씨 저고리 치수 비교



〈Fig. 23〉 『회혼례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From,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2009), p.148, p.149.



〈Fig. 24〉 『회혼례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From,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2009), p.148, p.149.



〈Fig. 25〉 밀창군 배위 복천오씨 영정 부분, 개인소장

## 2. 결마기[肩𠂔只]

경주 이씨의 저고리 32점 중에는 소매 끝이 장옷의 거들지 형태로 구성된 저고리 1점이 있다. 문헌 기록과 유물을 통하여 볼 때 이러한 형식의 저고리는 “결마기”라는 또 다른 저고리 종류이다.

결마기는 일반적으로 삼회장저고리의 겨드랑이 사이를 의미하나 의인왕후(懿仁王后) 『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殿都監儀軌)』의 ‘肩𠂔只’ 인목왕후(仁穆王后) 『빈전도감의궤』의 ‘腋𠂔只’ 등에는 독자적인 상의류로 기록되어 있다.<sup>9)</sup> 결마기는 한자어 ‘肩𠂔只’(1600) 腋𠂔只(1632) 傍莫只(1795)<sup>10)</sup> 肩莫只(1798)<sup>11)</sup> 肩莫只金箔<sup>12)</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을 의미하는 명사 ‘결’과 “막다”의 뜻을 갖는 동사가 결합한 것이다. 발기류 등에 고유어 ‘견마기’로 표기되며<sup>13)</sup> 현대어는 결마기이다. 명칭의 의미만 본다면 겨드랑이가 막힌 저고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성실은 겨드랑이가 막힌 저고리가 시류에 따라 단소화(短小化) 되고 금박(金箔)으로 장식을 더하여 화려한 형태로 변화하였다<sup>14)</sup>고 하였다.

결마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된다. 고종 24년(1887) 정해년 『진찬의궤(進饌儀軌)』 품목(稟目)조에서<sup>15)</sup> 사천여령 9명의 초록색 결마기갑[絹莫只 外拱 草綠八兩紬]을 마련했는데 이때 백색 거들지 옷갑[巨等+乙只 白八兩紬]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서 결마기라는 옷에는 흰색 거들지가 부착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혜경궁 홍씨의 궁궐 생활 기록인 『한중록(閑中錄)』에는 혜경궁이 삼간택 의복으로 결마기를 마련한 것에서 예복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발기류에는 자적색, 유록색, 녹색, 초록색, 연두색, 남송색, 송화색 등 색상의 결마기가 있으며 수(壽)·복(福) 글자를 부금(付金)한 결마기 기록이 다수 보인다.<sup>16)</sup>

위와 같은 기록에서 결마기라는 옷이 일상에서 보다는 예복을 입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소매 끝에 거들지가 달린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저고리는 30여 년간의 출토 복식에서 수많은 저고리 중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계에 소개된 것으로 2011년에 소개된 해평윤씨의 저고리 유물 30여점 중 거들지 달린 저고리는 단 1점이 있다. 이 때는 결마기라는 확실한 명칭보다는 가능성만 제시되었다. 이후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여성 묘에서 출토된 수원박물관 소장 저고리 중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를 결마기로

9) 박성실(2003), 16세기 출토 여복(女服)의 복식사적 고찰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2, p.44

10) 『園行乙卯整理儀軌』(1795), 권4, 盤纏, 內人 12人 傍莫只次草綠禾紬六尺

11) 『戊午 泣血錄』(1798), 子時小殮, 草綠貢緞肩莫只

12) 『韓山李氏慎終錄』(1915), 乙卯 小殮具

13) 이명은(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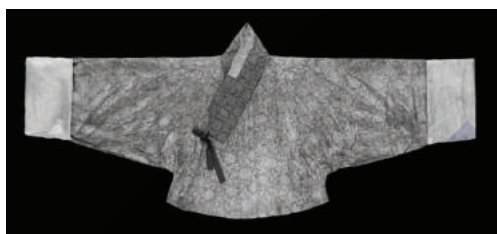
14) 朴聖實(1994), 「回粧赤古里와 肩𠂔只 再考」, 『美術資料』, 54, p.213.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서울: 민속원, p.473

16) 이명은(2003), op. cit.

제시하였다.<sup>17)</sup> 이외에도 석주선박물관 소장품 중 양천허씨(1566~1626)의 저고리, 탐릉군 묘출토 저고리(1700년대) 등에 거들지 달린 저고리가 있다.

이번에 소개된 경주 이씨의 거들지 달린 저고리는 단 1점만 있는 저고리로서 이 유물이 결마기에 해당한다. 출토 당시 짙은 아청색의 저고리로 발견되었지만 문중에서 실온에서 보관하던중 원래의 색상이 없어지고 짙은 갈색의 형태로 남아 보존되고 있다.



〈Fig. 26〉 안동김씨가 여인의 결마기(17세기 중반)



〈Fig. 27〉 해평윤씨 결마기(17세 말)



〈Fig. 28〉 경주 이씨 결마기



〈Fig. 29〉 덕온공주 부금 결마기(19세기 전반)

### 3. 회장저고리

경주 이씨의 저고리 중에는 깃, 끝동, 무, 고름 부분을 몸판의 색상과 옷감을 달리하여 장식한 6점의 저고리가 있다. 문헌에서 회장저고리를 언급한 것은 최초의 재봉교과서인 『조선재봉전서』(1925)에서 깃, 끝동, 회장(겨드랑이)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회장저고리’라고 하였다.<sup>18)</sup> 경주 이씨의 저고리 6점의 구성이 이에 해당함을 알수 있다. 회장저고리는 그 구성상 별다른 장식이 없는 저고리 보다는 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재봉』(1948)에서는 ‘삼호장’과 ‘반호장’를 처음으로 구분하였다. 겨드랑이 부분이 생략되어 깃, 끝동, 고름을 자주 하면 삼회장저고리이고, 부모와 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 부인의 정장이라 하였으며 반호장저고리는 남끝동과 자주고름을 달아 중년부인이 예의를 갖추는 때 입을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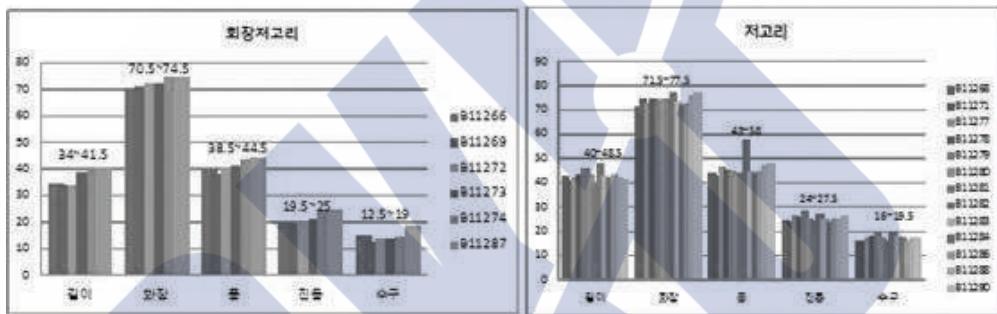
17) 이명근(2011). 출토 유물 고찰.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 수원박물관. p.27, p.45.

18) 김숙당(1925). 조선재봉전서. 서울: 활문사. p.27.



하였다.<sup>19)</sup>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경주 이씨의 저고리 중 깃, 끝동, 무, 고름 부분을 별단, 별색을 주어 만든 저고리 6점은 회장저고리라 칭할수 있을 것이다. 경주 이씨의 회장저고리의 특이한 사항은 장식하지 않은 일반 저고리에 비하여 옷길리와 옷품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발굴 당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여 염습과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B11266 저고리의 경우 이 보다 큰 치수의 또 다른 옷 2점과 함께 끼워져 삼작저고리 형태로 발견된 것을 볼 때 실제로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몸에 맞는 옷과 그보다 넉넉한 품의 옷이 모두 공존하였던 것은 아닐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Fig. 30〉 경주 이씨 회장저고리와 일반저고리의 크기 비교

#### 4. 장저고리

경주 이씨의 저고리 중에는 옷 길이가 61~65cm 범위로 특별히 긴 저고리가 5점이다. 함께 출토된 저고리에 비하여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저고리로 명칭하였다. 이 저고리는 겹깃 모양이 여성 저고리의 특징인 목판당코깃 형태이다. 고름은 몸판과 다른 별색이며 소매는 끝동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옆선이 막혀있으며 옷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크기와 조형성을 볼 때 여성의 저고리에 해당한다. 길이가 긴 여성 저고리는 1500년대에 볼 수 있으며 1600년대 이후에는 옆선이 트여 있는 당의 등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새롭게 발견된 1700년대 여성의 새로운 복식 유형이라 할수 있다. 이 장저고리는 함께 출토된 누비저고리와 비교하였을 때 길이, 품, 진동, 수구 등에서 크기가 모두 큰 편임이 확인된다.

19) 손정규(1948). 조선재봉. 서울: 삼중당.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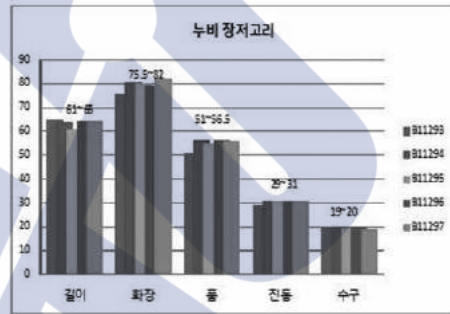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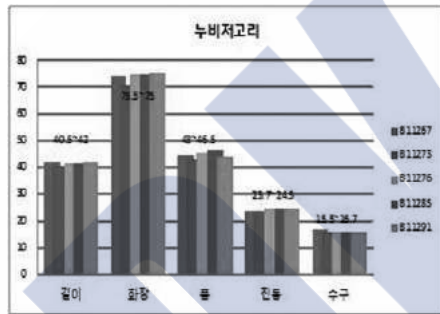
모두 누비옷의 상태이며 누비 간격이 3~4.5cm 정도로 넓다. 풀숨이 남아있는 등으로 보아 원래는 솜누비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소개된 누비 저고리와 누비 간격으로 볼 때 두툼게 솜을 두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볼 때 누비 장저고리는 추운 계절에 저고리 위에 덧입은 옷으로 현대의 코트처럼 사용된 것으로 정의 된다.



〈Fig. 32〉 겹누비 상태의 장저고리



〈Fig. 33〉 솜을 두어 누빈 장저고리 복원품. 유지우 작



〈Fig. 34〉 누비 장저고리와 누비저고리 크기 비교

## 5. 천의

경주 이씨의 유물 중에는 치마처럼 생겼으나 상부에 목판깃이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유물이 1점 있다. 이 유물이 천의에 해당한다.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襪薦衣’로 기록되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복식 용어로 속음으로 ‘치네’라고도 불리었으며 유물을 통해본 천의의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있다. 용도가 다양하여 이불 대용의 간편 천의, 머리천의, 포대기용 천의의 3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20)</sup>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820년경)에는 천의의 용도와 형태에 대해 상부는 둥글고 아래는

20) 이명은(2016). 천의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 第36號. 경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5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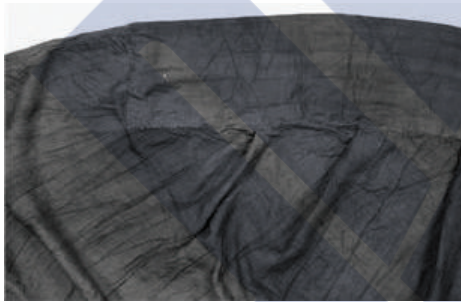


직선 형태의 작은 이불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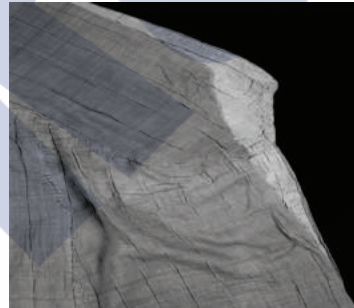
광운(廣韻)에서 횡답은 작은 덮개이다. 지금 세속에서 소위 천의(薦衣)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 횡답의 유제이다. 색주(色紬)를 사용하고 [겉은 자색, 녹색, 금향색 등을 사용하고 안감은 청색이나 녹색 등 마음대로 한다], 솜을 넣어 활행선[너른누비]으로 누빈다. 몸체는 이불 보다 작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직선으로 되어, 앉아서 덮으면 허리와 무릎을 덮을 수 있다. 누워서 덮으면 따뜻해서 노인이나 병자에게 더욱 편하다. <임원경제지><sup>21)</sup>

조선 말기 궁중 기록의 하나인 발기<sup>22)</sup>에도 ‘천의’ ‘衣薦衣’<sup>23)</sup>의 표기로 이불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주로 금침 관련 발기에서 침[枕:베개], 금[衾:이불], 천의[衣薦衣], 노[褥:요]의 순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불과는 다른 용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경주 이씨의 천의는 양반들이 집에서 소일할 때 간편하게 사용한 작은 이불의 용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로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천의<sup>24)</sup>가 있다. 경기도 별내면에 소재한 평산신씨(平山申氏) 광헌(光憲: 1731-1784)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경주 이씨의 것과 달리 저고리 모양과 같은 목판 당코깃을 달았다. 경주 이씨의 천의가 목판깃 형태인 것을 볼 때 시대적으로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Fig. 35〉 경주 이씨 묘 출토 천의의 목판 깃 모양



〈Fig. 36〉 신광헌 묘 출토 천의의 목판당코깃 모양

21) 徐有渠(1820년경). 林園經濟志. 贍用志 卷3. “褡”

廣韻橫褡小被也 今俗所謂薦衣 即古橫褡之遺制也 用色紬表用紫綠錦香等色, 裏用青或綠隨意 裝綿絮 潤行線縷 體小於被 而上圓下方 坐可以擁護腰膝 臥可以加被取溫 老病者 尤所便也[金華耕讀記]

22) 韓國精神文化研究員(1994). 古文書集成, 十二-藏書閣篇 Ⅲ.

23) 『당미시가례일고』에는 ‘천의’와 동일한 내용이 규장각 소장의 한자본 『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1848)에는 ‘衣薦衣’로 표기되어 있다.

24) 이명은(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p.114, pp.149~150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03년 10월 29일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소재한 진주 류씨 참판공 류정(1684-1753)과 후 배위 경주 이씨의 관 속에서 수습된 47점의 옷에 대하여 종류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료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첫째, 유물의 종류는 장옷 2점, 결마기 1점, 회장저고리 6점, 장저고리 5점을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토수 1점, 너른바지 1점, 치마 7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이다. 이들 유물은 식물성 섬유질이 모두 퇴화되어 동물성 섬유의 복식만 남아있는 사례이다.

둘째, 저고리 중 27점은 깃 모양이 목판당코깃 형태이며 앞 시대에 비하여 깃이 더욱 굴러지고 저고리 길이와 품, 소매가 짧아지고 좁아졌다. 이러한 조형성을 통해 경주 이씨가 17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생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소매 끝에 흰색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는 예복용 결마기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61~65cm 범위의 길이가 긴 누비저고리 5점은 목판당코깃 형태에 옆이 막히고 도련이 품보다 넓은 형태이다. 동절기에 두툼게 솜을 두어 누비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다. 1700년대 유물에서 최초로 확인된 또 다른 유형의 여성 옷이다.

다섯째, 추운 날 방안에서 쉴 때 간편하게 사용하였던 이불의 한 종류인 천의(薦衣) 1점이 있다. 상부를 저고리와 같이 목판깃 형태로 만들었다. 동일 품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섯째, 상류층에서 성장할 때 치마의 밑받침 옷으로 입은 너른바지가 확인되었다. 치마와 크기가 비슷하고 가랑이 둘레가 매우 넓다.

이상으로 연구된 자료는 2017년 5월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 분야 제36회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진주 류씨 류정의 처 경주 이씨 출토 복식”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 참고문헌

- 『園行乙卯整理儀軌』(1795). 권4.  
 『戊午 泣血錄』(1798).  
 『韓山李氏愼終錄』(1915).  
 閔遇洙(1799). 貞菴集, 卷之十.  
 徐有渠(1820년경). 林園經濟志. 贍用志 卷3.  
 강순제 외(2015). 한국복식사전. 서울: 민속원.  
 김숙당(1925). 조선재봉전서. 서울: 활문사.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2004). 韓國服飾, 第二十二號.  
 ----- (2013).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묘 출토 유물. 서울: 민속원.  
 박성실(1994). 『回粧赤古里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54.  
 ---- (2003). 16세기 출토 여복(女服)의 복식사적 고찰.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2.  
 손정규(1948). 조선재봉. 서울: 삼중당.  
 이명은(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1). 출토 유물 고찰.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 수원박물관.  
 ---- (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 (2011). 천의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 第36號. 경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晉州柳氏大宗會 刊(2006). 晉州柳氏歷代人物傳.  
 채옥자 외(2010). 해평윤씨 묘 출토 퇴화직물에 관한 고찰, 성주이씨 형보의 부인 해평윤씨 출토복식. 경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서울: 민속원.

## A Study on Garments Style Excavated from Madam Lee's Tomb

Lee, Myung-eun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In 2003, 47 pieces of garments were excavated from the grave of Madam Lee(Gyeongju clan), the wife of Ryu Jung(1684~1753: Jinju clan), in Yongin, Gyeonggi-do. This study is to judge the era through the close analysis of the excavated clothes. Special clothes are Gyeonma-gi(Woman's ceremonial jacket), Hoe-jang-jeo-go-ri(Woman's jacket decorated with different colored fabric) and Neo-reunbaji(Woman's drawers). Cheo-nui(A type of Blanket for a handy quilt) is the oldest of all the same artifacts and Nubi-Jang-jeo-go-ri(Woman's long quilted jacket) is first discovered from the 18th relics. The collars of 32 pieces of Jeogori(Jacket) with various prints of flowers and fruits patterns are formed with Mokpandanko-git(One corner end of the collar is trimmed diagonally, creating a wide arrow like shape at the end). The changes in jeogori silhouette are more evident in the 18th century.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ing period, collars became more rounded and jeogoris became noticeably shorter and tighter with shorter straight sleeves. The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grave of Madam Lee are garments of the women who lived during the mid 1700s through the above analysis.

**KeyWord:** Gyeonma-gi (Woman's ceremonial jacket), Cheo-nui (A type of Blanket), Jang-jeo-go-ri (Woman's long jacket), Mokpandanko-git (One corner end of the collar is trimmed diagonally, creating a wide arrow like shape at the end)

## 간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총 2회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인은 박물관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1)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 (2) 평가기준

- ① 논문의 독창성
- ② 학문적 기여도



-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①  $A \cdot A \cdot A / A \cdot A \cdot B$  : 게재
- ②  $A \cdot A \cdot C / A \cdot B \cdot B / A \cdot B \cdot C / B \cdot B \cdot B / B \cdot B \cdot C$  : 수정 후 게재
- ③  $A \cdot A \cdot D / A \cdot B \cdot D / A \cdot C \cdot C / A \cdot C \cdot D / A \cdot D \cdot D /$   
 $B \cdot B \cdot D / B \cdot C \cdot C / B \cdot C \cdot D / C \cdot C \cdot C / C \cdot C \cdot D$  : 수정 후 재심사
- ④  $B \cdot D \cdot D / C \cdot D \cdot D / D \cdot D \cdot D$  :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투고규정

###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 2. 투고 요령

-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ckafka@dankook.ac.kr).
- ②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 ③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복식』 원고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 3.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 ①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국문 초록과 200 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 5개 이상의 국·영문 핵심어, 참고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기타

-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와 별쇄 10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031) 8005-2393      전자우편: ckafka@dankook.ac.kr

## 참고문헌 작성 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각주’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 1. 본문에서의 인용 방법

- 1) 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한다.
- 2) 두 가지 이상의 참고문헌을 참고할 경우 저자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처리한다.
- 3) 같은 해에 여러 편 발표한 동일 필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연도 뒤에 ㄱ, ㄴ, ㄷ... 또는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 4) 동양 지역 간행본의 경우, 간행연도는 서기로 환산하고 특정연대는 괄호로 처리한다.
- 5) 전개(前掲) 논문은 「앞글」, 전제서(前掲書)는 「앞책」 또는 Ibid. 이라 쓰며,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그림의 출처 인용  
인용되는 그림과 표 등의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Fig.)제목 밑에 「From.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 또는 「출처.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참고문헌 정리양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 2. 참고문헌 정리양식

#### (1) 학회지

##### ① 저자가 두 명 이하인 경우

[예] Pavio, A., & Chun, J.(1994). Perceptu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 ②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Horowitz,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 (2) 신문, 잡지 기사

### ① 저자가 있는 경우

[예] Gardner, H.(2006, 12. 11.).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 70-76.

###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예]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2007, April). APA Monitor, p. 15.

## (3) 서적

### ① 저자가 개인인 경우: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Frings, G. S.(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9th ed.). Seoul: Sigmappress.

### ② 저자가 기관인 경우: 기관명(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 ③ 저자가 없는 경우: 책 제목(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College bound seniors(1979). Princeton, NJ: College Board.

### ④ 번역서인 경우: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 )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1986). The fashion theory (J. Yoon, Trans.). Seoul:Sigmap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4) 편저에 포함된 인용문인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Eds.)(2004). Bilingua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 (5) 영어가 아닌 책: 저자(연도). 책 제목[영어번역]. 출판도시: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2006). La genèse de l'idée de han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 (6) 학술대회 발표논문

①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저자(연도). 논문제목. 책 제목,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o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②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저자(발표연월). 논문제목. 행사명, 도시.

[예] Brener, J.(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adison, WI.

#### (7) 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②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8)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9)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예] Hilts, P. J.(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00, from <http://www.nytimes.com>.

#### (10) 법조항

①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②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1)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2) 비디오/ 필름

[예] Mass, J. B.(Producer), & Gluck, D. H.(Director).(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

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석주선기념박물관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관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관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8 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                                                                                                                          |        |  |      |  |        |  |
|--------------------------------------------------------------------------------------------------------------------------|--------|--|------|--|--------|--|
| 투고권호                                                                                                                     | 제 집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제 목                                                                                                                      | 국 문    |  |      |  |        |  |
|                                                                                                                          | 영 문    |  |      |  |        |  |
| Keywords<br>(5개 이내)                                                                                                      | 국 문    |  |      |  |        |  |
|                                                                                                                          | 영 문    |  |      |  |        |  |
| 제1저자<br>(주저자)                                                                                                            | 이름(한글) |  |      |  | 이름(영어) |  |
|                                                                                                                          | 소 속    |  |      |  |        |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e-mail |  |      |  |        |  |
|                                                                                                                          | 주 소    |  |      |  |        |  |
| 공동저자1                                                                                                                    | 이름(한글) |  |      |  | 이름(영어) |  |
|                                                                                                                          | 소 속    |  |      |  |        |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e-mail |  |      |  |        |  |
|                                                                                                                          | 주 소    |  |      |  |        |  |
| 공동저자2<br>성명, 소속<br>전화번호                                                                                                  |        |  |      |  |        |  |
| <p>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p> |        |  |      |  |        |  |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031)8005-2389, Fax: 031)8021-7157, E-mail: ckafka@dankook.ac.kr



## 투고관련 사항

###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37號

찍은 날 2017年 5月 30日 印刷

펴낸 날 2017年 5月 31日 發行

發 行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